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소설 작품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 연구

- 채만식의 『탁류』와 박완서의 『나목』을 중심으로 -



2012 년 2 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 교육 전공

손 세 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소설 작품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 연구

- 채만식의 『탁류』와 박완서의 『나목』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송 명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 년 2 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 교육 전공

손 세 진

손세진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 년 2 월 24 일



주 심 문학박사 조 동 구 (인)

위 원 문학박사 김 남 석 (인)

위 원 문학박사 송 명 희 (인)

목 차

I. 연구의 필요성	1
1. 연구의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6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2
II. 페미니즘 비평의 흐름과 이론적 기초	15
1. 한국 문학과 페미니즘 비평의 흐름	15
2. 페미니즘 비평의 이론적 기초	23
가. 여성이미지 비평	23
나. 여성작가 비평	25
다. 여성적 글쓰기	28
III. 여성적 글쓰기와 문학교육	37
1.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교과서 분석	38
2. 채만식의 『탁류』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	53
가. 가부장제 사회의 희생양 강요와 모순 폭로	59
나. 대안적 여성 제지	70
3. 박완서의 『나목』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	75
가. 모녀의 단절 속에 나타난 자기회복 의지	79
나. 언어를 통한 자신의 존재와 경험 표현	85
IV. 페미니즘 소설의 문학 교육	93
V. 결론	101
참고문헌	105

A study on Feminine Writing of works in the
Korean Language textbook of high School
- Through the review of 『*Turbid Waters*』 , 『*Naked Tree*』

Son Se Ji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Korea had neglected female education under the idea of predominance of men over women and patriarchy arisen from Confucian traditions, however, female power and awareness fairly improved due to the recent improvement of female educational standards and active entry of women in public affairs. Nevertheless, according to the Gender Empowerment Measure in 2001 b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Korea ranked 61th place out of 61 countries and turned out to be suffered from imbalance in the area of workforce entering and power distribution despite of her openness for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men and women. This outcome can be changed with the shift of Korea's socially accepted idea by enthusiastically implementing gender equality in school educ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nsider contemporary novels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from the feministic perspective and to find ways to reflect those considerations to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achieve these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ways for gender equality education primarily using contemporary novels in high school Korean language textbooks in which learners can understand and criticize

its social conflicts to develop the formation of self-becoming through establishing personal values.

First of all, in chapter II, this study took a look at the flow of feminism and feministic criticism and theory in Korean literature as a theocratical background for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chapter III, this study clarified that current textbooks are consisted of male oriented contents by analyzing textbooks which are the representative teaching-learning material and searched for alternative ways to change and supplement this problem.

In additions, it analyzed *Turbid Waters* written by Chae, Man-sik as a ecriture feminine work written by a male writer and *The Naked Tree* by Park, Wan-seo as a ecriture feminine work written by a female writer that are included in the textbooks on the basis of 'ecriture feminine', one of the methods of feministic criticism. As a result, *Turbid Waters* exposes coercive sacrifices imposed for women in modern society and contradictions of patriarchal institution and approaches the problems of a maturing woman by presenting an alternative character who comes up against the female protagonist 'Chobong'.

In *The Naked Tree*, the author expresses her female protagonist's will to recover herself amid of her severance of maternal instinctive love by means of autobiographical writing based on the author's own experience. Furthermore, the author showed her existence and experience as a woman by employing layers of language of confession, madness, body, and monologue.

In chapter 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jective of literary education and the education of feminism novels was investigated, and the application of feminism literature to the education of novels, and the educational meaning through the application were also examined.

From the standpoint of female education, feminism novels can become an excellent educational material to create the subjective self of women. Also, the education of feminism novels should be performed in the way to investigate the true female characteristics and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process to form a female identity through the novels reflecting female consciousness.

Such an education will help learners make analytical decision on gender-discriminative ideology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feminism in novels, and consequently form their right sense of value about gender.

With this, this study proposed alternative ways to the establishment a women's self identity and the desirable gender education by disclosing problems related with gender discrimination and analyzing feministic novels in high school Korean language textbooks.

I hope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direction of Korean language class for the improvement of the gender equality awareness.

I.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근래에 들어 우리나라도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권한이 외향적으로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남녀차별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과거로부터 이어진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적 인식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업사회를 넘어서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 고정된 여성의 역할 역시 개인과 시대에 따라 변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본교육법의 제1장 총칙에서 제2조 교육이념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에서 말하는 개인지향적인 삶과 사회지향적인 국가관 및 세계관은 국어교육의 이념도 될 수 있다. 즉, 국어교육도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인격과 생활능력과 공민적 자질을 목적으로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국가 발전과 인류공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¹⁾

우리나라의 경우 확고한 유교적 전통으로 남존여비 사상이나 가부장제도 아래 여성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17세기의 서양 문물의 도입과 조선 말 고종 13년(1876)의 병자수호조약에 의한 개항으로 인재 양성을 위

1) 국어교육미래열기,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2005, 28면.

한 새로운 지식의 유입이 불가피해지면서 자리 잡게 된 기독교 사상은 남녀평등 사상의 확산과 여성 교육에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 1884년 설립된 배재학당과 1890년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이화학당은 남녀평등 사상에 입각해 여성 교육 기회의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에 뿌리박힌 전통적인 여성관을 전면적으로 부정해서는 여성 교육이 시작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여 기독교의 봉사적인 인간상 아래 한국적인 여성이 되는데 목적을 두었다.²⁾ 이는 여성에게 교육의 문이 열리긴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남성 교육과 여성 교육의 성격이 분명하게 나누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해방 이후에야 비로소 학교 교육은 남녀의 구분이 없는 평등한 교육을 지향하기 시작하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6-3-3-4의 신 학제를 적용하고 남녀공학을 실시했으며, 공립중등학교 교장을 여교장으로 임명하는 등 여성에게도 남성과 같은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고자 했다.³⁾ 이후 여성 교육은 꾸준한 양적 성장을 해왔으나 이러한 것이 곧 여성교육의 평등을 의미할 수는 없다. 여성 교육의 경우 독립된 여성 주체로서의 평등한 교육을 지향함에도 교육의 과정은 어디까지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남성중심주의가 만연한 현실의 사회 구조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모순점을 가진 만큼, 교육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는 여성 교육을 위해 교육 내용이 내재되어 있는 사회의 보편적인 성 불평등을 의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화목한 가정을 표현하는 교과서의 삽화에서 여성의 모습은 과일을 깎고 있거나 음식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뿐만

2) 이진분, 「여성 교육의 현실과 방향 모색」, 『성평등 문화를 여는 교육』, 또 하나의 문화, 1995, 22면.

3) 한상길 외, 『여성교육론』, 양서원, 2007, 46면.

4) 김미진,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2009, 3면.

아니라 의사나 설계사 등의 전문직을 나타내는 삽화에서도 그 중심은 남성이었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늘 남성을 내조하는 역할이었으며 순종적이고 가족에게 헌신하는 여성의 모습이 참된 진리였다. 그러나 그동안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여성들에 대한 사회인식이 변화되었다. 단순한 업무나 소일거리에 종사하는 것이 고작이었던 여성들이 각종 고시에서 남성을 추월하기 시작하였으며 기업 관리자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사회에 진출한 많은 여성들은 일명 ‘유리천장’이라는 것에 가로막혀 더 나은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현재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 경제인구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전통적 여성상을 주입시키던 교육과정의 영향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교과서는 국가의 교육이념이나 목표를 구현하는 수단이자 학생들의 지적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자료이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교수-학습 자료로서 교육에 대한 철학과 관점은 물론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 등을 총체적 지식의 형태로 반영하고 있다. 학교 교육을 받는 모든 이들은 공통된 교과서를 통해 교육을 받고 공통된 영향을 받으므로 교과서는 학교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가치관과 인성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인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들은 의도적으로 선정된 것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남녀 불평등 현상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성적 가치관을 확립시키거나 성 고정관념을 강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성불평등 재생산에 기여한다.

교육의 내용이 성 불평등적일 경우 학교 교육은 교육 기회의 평등에 상관없이 오히려 사회의 성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사회집단간의 갈등을 중시하는 갈등론적 관점을 전제로 하는 마르크스적 관점에

서 학교 교육은 사회의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공교육인 학교 교육을 통해 지배 집단의 가치관을 피지배계급에게 교육 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마르크스주의 재생산 이론을 여성의 문제에 접목하여, 여성이라는 약자에 대한 기존 사회의 차별이 학교 교육을 통해 재생산 되어 여성의 피지배적 입장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⁵⁾

그러나 학교 교육의 부정적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한 내용과 방법을 활용하여 학교 교육의 방향을 수정한다면 학교 교육이 남녀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남녀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남녀 모두가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현실 속에서 찾아야 한다.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이념, 목적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과정을 담고 있다.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교육내용은 학교교육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지식, 사회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인간상과 사회상을 규정하는 동시에 학생의 교육경험의 폭과 질을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는 당대의 교육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통해 재생산의 방식을 거쳐 학생들의 의식에 오랫동안 잔존한다. 특히나 국어교과서에서 다루는 문학작품들은 단순히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뿐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정서의 함양을 다루므로 국어교과서의 정전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

5) 알튀세(1971)에 의하면 지배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피지배 계급의 자발적 복종이 따라주어야 한다. 자발적 복종은 지배계급의 가치와 규범을 피지배계급에 내면화시킴으로써 가능해진다. 학교 교육이 교육을 통해 이와 같은 지배계급의 지배와 피지배계급의 자발적 복종을 재생산하는 것을 재생산 기능이라 하며, 이러한 재생산 기능을 다루는 이론을 재생산 이론이라 부른다. - Miriam Glucksmann, 정수복(역), 『구조주의와 현대마르크시즘』, 한울, 2002. 212-230면 참조.

향은 매우 크다.

교육내용이 남성 중심으로 짜여 졌다는 것은 여성에 관한 교육 내용은 주변으로 밀려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나 본받을만한 역할 모델을 접하지 못한 여학생들이 자아형성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남성 중심적 교육하의 여학생들은 남성 교육에 편입된 외부자로서 남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부를 부분적으로 흡수할 뿐, 교육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위한 자아 형성의 기회는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평등한 교육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기회의 평등 뿐 아니라, 결과적 평등을 위한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여성 교육이 처한 한계를 의식하고 이를 수정·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문학교육의 목표 중 하나가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를 이해하며, 문학의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⁶⁾는 것이라고 할 때 ‘성’이라는 주체는 여성이나 남성에게 있어 자아실현의 가장 근본적인 탐색자질이다. 문학을 통해 청소년기의 학습자들이 이러한 자질을 습득하게 되면 스스로의 시각으로 텍스트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된다. 또한 텍스트를 토대로 세계를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에 대한 공정한 가치관을 고민하고 자신들의 가치관을 정립해 보는 기회를 가져본다면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타자들에 대한 관심과 성찰로까지 인식을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아의 성장과 가장 관계 깊은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중 페미니즘 소설을 연구하고 교수학습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

6)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국어②』, 대한교과서, 2001, 3면.

2.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교육 분야의 성차별 양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과서 분석에 집중되었다. 교과서 개정에 따라 교과서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교과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분석한 연구들은 제 4, 5차 교육과정 개정 뒤부터 증가되어 나타났다.

국어 교과서에 내재되어 있는 성 불평등을 의식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에 주목하여 일단의 연구들이 이루어진 결과 국어 교과서의 성 불평등 요소 분석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물론 접근 시각의 차이나 분석대상의 범위에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교과서 분석을 통한 성 불평등 요소를 밝혀내고자 하는 점에서는 같은 목적의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재인·정혜숙·양애경⁷⁾은 제 5차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제 4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비해 표면적으로 성차별적 요소가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한 성에 편파적인 교육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어 여학생들의 교육 경험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덕주⁸⁾는 제 6차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소설과 희곡 작품들이 학생들의 성역할 고정 관념 형성 및 강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고, 그런 경향의 작품들이 많이 수록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였다. 교과서의 개별 작품들을 여성 등장인물의 중요도와 성격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

7) 김재인·정혜숙·양애경,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남녀역할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93.

8) 이덕주,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성차별적 요소 분석 : 소설·희곡의 여성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0.

여 교과서의 성차별 요소를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안지영⁹⁾은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고전소설 구운몽, 춘향전, 허생전을 분석하였다. 안지영은 이 논문에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억압받고 여성의 권리가 무시되는 순종적인 모습만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전문학교육에서 올바른 여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국어교과서의 작품을 이용한 여성상 교육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후 교과서의 여성상을 다룬 연구들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정금자¹⁰⁾는 제 6차 교육과정의 운영 현황과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남녀역할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될 교과서의 교육내용이 양성평등하며 교육과정의 운영 또한 성인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과서의 개정으로 국어 교과서의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연구는 제 7차 교과서를 대상으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오재림¹¹⁾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여성교육정책연구과제의 수행으로 초등학교 교과서 5, 6학년용을 제외한 114권을 분석하여 교과서에 내재한 성편견이나 성차별적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교과서의 개발과정에 있어 성 형평성의 점검 부재라는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저자의 성형평성과 교과내용의 성 편견을 점검하는 장치로서의 심의기준안을 제시하였다.

김애희¹²⁾는 성역할 의식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인 중학교 1학년 제 7차

9) 안지영,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수록 고전소설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8.

10) 정금자,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제6차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98.

11) 오재림, 「양성평등관점에 기초한 제 7차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및 교과서 심의 기준 마련에 관한 정책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2.

국어교과서의 성차별적 내용을 분석을 통해 교과서에 나타난 성차별적인 상황을 찾아내고 작품의 성별에 따른 역할의 차이, 직업, 가치, 성격 등을 분석하여 교과서가 양성 평등적 가치를 제대로 담고 있는지를 밝히고 글쓴이의 남녀 성별에 다른 차이를 연구하였다. 분석 도구를 세밀하게 나누어 다양한 방향에서 교과서의 성차별적 내용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윤혜정¹³⁾은 제 5차부터 제 7차까지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소설, 희곡 단원의 성차별 양상을 살펴보았다. 저자, 인물, 삽화, 학습활동에 이르기까지 교과서를 다각도에서 살펴보았으며 대부분의 측면에서 성차별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은 다양한 방향에서 국어교과서의 성차별 문제를 살펴보고, 통시적 관점에서 성차별적 양상의 변화를 바라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영선¹⁴⁾은 제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소설 작품을 중심으로 성차별에 대해 연구했다. 작가의 성별 분석과 작품 분석의 두 방향에서 교과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여성중심 소설과 남성 중심 소설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교과서에 나타난 성차별에 대해 알아보고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윤용원¹⁵⁾은 일어나는 언어속의 양성불평등 문제를 언어사회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양성평등적인 바람직한 언어사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제 7차 교육과정의 문학교과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교수학습

12) 김애희,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의 성차별적 내용분석」, 부산대 석사학위 논문, 2004.

13) 윤혜정,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성차별 양상」,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2005.

14) 조용선,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소설의 성차별 연구: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경기대 석사학위 논문, 2006.

15) 윤용원, 「고등학교 국어교과 양성평등 교수-학습방안 연구」, 한경대 석사학위논문, 2008.

활동과 양성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교사의 구체적인 학습지도안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 7차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도 여성 인물의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불평등 요소를 짚어내고자 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는 여성상을 통한 교육의 효과에 주목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아정¹⁶⁾은 현행 중학교 국어교과서 내의 소설 작품 13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성차별적 요소를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의도하지 않더라도 교과서에서 성적 차별을 받는 여성들과 그들의 삶에 끊임 없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성차별적 인식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는 작품들이 더욱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소설의 인물이 여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연구의 신뢰도에 신경을 쓴 연구라 할 수 있다.

장순심¹⁷⁾은 여성 주의적 시각에서 수록된 작품을 분석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비판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순심은 문학제재의 주제와 관점을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성차별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와 남성 주의적 시각으로 구성된 국어교과서가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에게 억압적인 상황을 강요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남성 주의적 사회원리가 여성은 물론 남자에게도 얼마나 비인간적 상황을 강요하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성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라는 모순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제 7차 교과서를 총체적으로 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양성평등적인 교수학습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정현주¹⁸⁾는 제 7차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의 소설 속 인물에 대한 연구를

16) 정아정, 「현행 중학교 교과서 수록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 연구」, 공주대 석사학위 논문, 2003.

17) 장순심,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국어교과서」,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04.

나타낸다. 소설 속 여성인물의 형상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양성평등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현주는 현대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가 드러나는 방식과 그에 따른 교육의 결과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내면화 될 것인지를 고찰하였다. 더불어 남녀의 올바른 역할 정립을 위한 교과서 작품 선정의 유의점과 대안에 대해서도 일부 제시하였다.

전유선¹⁹⁾은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전반에 나타난 성차별적 요소를 살펴보고 그 중 소설과 희곡 작품을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분석, 양성평등 교육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송영실²⁰⁾은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의 남성작가의 소설작품을 대상으로 여성이미지를 분석하고 그 속에 나타나 있는 성차별적인 가치관을 간파해왔음을 밝히고 양성평등적인 가치관 확립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김미진²¹⁾은 여성 교육의 측면에서 국어 교과서의 여성상에 대해서 다루고 세 가지 방향에서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남성 작가에 비해 여성 작가의 수가 부족하며, 둘째,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교과서 수록 소설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여성상을 재생산하고 있으며 셋째, 등장인물 측면에서 여성 등장인물이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성향을 보여 여학생들의 주체적 자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밝히고 그 유형에 따라 『중국인 거리』, 『살아있는 날의 시작』, 『토지』를 페미니즘 소설 제재로 선택하여 여성 교육의 신장을 위한 대안으로

18) 정현주,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수록소설의 여성 인물 연구 : 양성 평등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단국대 석사학위 논문, 2006.

19) 전유선,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의 성차별 극복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아주대 석사학위 논문, 2009.

20) 송영실,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나타난 여성이미지 연구」, 부경대 석사학위 논문, 2007.

21) 김미진, 앞의 논문.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교과서의 성 불평등 문제와 국어 교육과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하여 선행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소설교육과 교육의 연계성으로 인하여 소설 교육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국어 교과는 모든 교과의 도구교과로서의 성격과 국어교과가 가지는 교과적 특수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국어 교육은 청소년기의 감정이나 논리의 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행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국어 교과서에 스며있는 남성중심주의적 원리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작업은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이며 동시에 양성평등의 관점에 기초한 국어 교과서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확립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다가올 시대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이 같은 문제제기가 요구된다.²²⁾

남녀 불평등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 모두의 문제라는 점에서 성 통합적인 시각을 통한 총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소설 교육의 본질적인 교육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아 형성의 입장에서 여성이 건강한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여성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고민이 필수적이며 역할 모델로서의 긍정적인 여성상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소설 교육의 여성상의 문제는 자아 형성 기회의 문제성과 연관되며 소설 교육에서의 다양한 여성상 제시는 여성의 자아 형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기회를 담보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 정진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페미니즘 비평의 전개와 방법론

22) 장순심, 앞의 논문, 5-7면 (참조).

을 이론적 배경으로 제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제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어교과서를 분석하여 남성중심의 가치관이 녹아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현대소설 중 채만식의 『탁류』와 박완서의 『나목』을 각각 선택하여 페미니즘 비평 이론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국어교육을 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주체적 자아형성과 양성평등적인 올바른 가치관을 학습자에게 심어줄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양성평등적인 가치관을 학습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측면에서 페미니즘 비평 이론 중 여성적 글쓰기를 통해 소설 교육의 성불평등 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를 위하여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첫째, 가치관 정립을 통한 자아 형성을 위해 사회적 가치의 갈등을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삼는다.

둘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삼음에 따라 분석의 대상은 현행 제 7차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로 정한다. 특히나 2010년 고등학교 국어교과서가 검인정 교과서로 개정됨에 따라 2011년 교육과정부터 적용된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16종(상·하 총 32종)과 개정 전의 국정교과서 상·하를 비교하여 교과서 내에 수록된 작품을 통해 남녀불평등의 변화양상을 살펴본다.

셋째,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본문 외의 보충 학습과 심화 학습에 실린 소설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당대 현실상 여성작

가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었기에 남성 저자의 비중이 월등히 많았던 것을 고려해 고전소설은 제외한다.

넷째, 교과서 분석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극복 방안과 페미니즘 소설을 문학 교육에 활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페미니즘 소설 교육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교과서의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II장에서는 본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이론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페미니즘 비평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페미니즘 문학 비평의 흐름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이후의 논의에 대한 이해를 수월하게 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페미니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국어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교과서 분석은 2010년 개정 김인정 국어 교과서(상·하)의 현대 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먼저 교과서 편제에서 드러나는 여성 작가의 비율과 주인공의 성별 비율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은 어떠한 것인지 지적할 것이다. 또한 양성평등교육을 위해 수정·보완되어야 할 점을 살펴볼 것이다. 교과서 편제에 따른 분석을 한 뒤에는 페미니즘 비평 이론 중 하나인 ‘여성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남성작가의 여성적 글쓰기와 여성작가의 여성적 글쓰기로 나누어 작품을 연구하였다. 대상 작가와 작품은 1930년대 남성작가이면서도 여성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채만식의 『탁류』와 자전적 글쓰기로 여성의 주체적 자아형성을 제시하고자 한 박완서의 『나목』을 연구하였다.

채만식은 근대와 전근대가 충돌하여 혼란스러웠던 1930년대 대표적인 남성작가로 당시 남성작가들에 비해 여성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작품에 반영한 대표적인 남성작가로 그의 문학에 나타난 여성의식을 점검함으로써 페미니즘 관점에서 채만식 문학의 의의를 다시 정립해 보고,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본고에서는 1930년대 식민지 시대와 맞물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현실을 초봉과 계봉이라는 두 여성인물의 대립적 인물을 통해 나타냄으로써 여성의 주체성과 삶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의 중요성을 표현하고자 했던 채만식의 작품 중 『탁류』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마흔이라는 늦은 나이로 등단한 박완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냈다. 그는 식민지 말기, 해방공간, 전쟁의 현장을 체험한 세대로 그의 작품에는 이러한 한국 근대사의 역사와 더불어 이 시기 여성들이 겪는 갈등이 주축이 되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경험이 반영된 체험적 글쓰기를 통해 상처 치유와 정체성 찾기로 이어지는 그의 작품들을 통해서 여성주인공들의 삶을 중심으로 여성의 자기발견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본고에서는 그의 생애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경험인 전쟁을 바탕으로 오빠의 죽음을 경험하고 난 후의 모성과의 단절을 경험하면서 여성이 처한 상황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와 주체적 삶을 위한 갈망을 나타내고자 했던 박완서의 처녀작인 『나목』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IV장에서는 문학교육의 목표와 페미니즘 소설 교육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 페미니즘 문학을 소설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의의를 살펴본다.

II. 페미니즘 비평의 흐름과 이론적 기초

1. 한국문학과 페미니즘 비평의 흐름

사회사적으로는 페미니즘의 발화점은 산업혁명과 중산층 시민계급의 형성이라 할 수 있다. 즉 시민계급 형성에 따른 교육의 보급과 문자 해독율의 증가는 독자층을 형성하여 문학작품에 대한 수요를 높였고 전통적인 가내 생산품의 공장생산화는 여성들의 여가를 증가시켜 여성들을 문학의 중요한 소비자로 만들었다.²³⁾

19세기 말 페미니즘 투쟁은 참정권 요구와 더불어, 여성이 엘리트 집단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해 줄 출산 통제와 교육 문제에 매달린다. 이를 위해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의 중산 계층 여성들이 조직화하기 시작한다.²⁴⁾

페미니즘은 린다 고든(Linda Gordon)에 따르면, 여성의 예측성을 분석하되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²⁵⁾ 또는 여성에 대해 갖는 생각을 변화시키려는 것, 여성을 그녀의 본질이 생리학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그리고 여성의 운명이 인간종족을 재생산하는 것이 그 본질 중의 하나라고 보는 관습을 떨쳐버려야 한다.²⁶⁾는 것이다.

팜 모리스는 페미니즘을 두 가지 기본 전제에 바탕을 둔 정치적 인식으

23) 서지문, 「영문학에 있어서의 페미니즘의 흐름」, 『여성해방의 문학』, 평민사, 1995, 346면.

24) 윤동진, 「프랑스 페미니즘과 여성적 글쓰기」, 『여성논총』, 경기대 여학생문화원 여성학연구실, 1998, 85면.

25) 방영이, 「한국근대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1992, 9면.

26) Ruthven, K.K, 김경수(역), 『페미니스트 문학비평』, 창작과 비평사, 1989, 53면.

로 규정한다. 그 첫째는 성별의 차이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구조적 불평등의 토대이며 이로 인해 여성들이 사회 속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불평등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성에 따른 불평등이 생물학적 필요의 결과가 아니라 성별의 차이라는 문화적 구성물에 의해 생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페미니즘의 과업은 이 불평등의 사회적, 심리적 기제들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며, 그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의미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윤리관을 획득하는데 있다.²⁷⁾ 이러한 고찰은 페미니즘의 역사가 여성 해방이라는 구체적인 정치적 실천 영역에서 시작하여 세계 인식의 쇄신이라는 형이상학적 차원으로까지 고양되었음을 시사한다.²⁸⁾

페미니즘 비평(Feminist Criticism)은 흔히 여성해방비평 또는 여권론 비평, 여성주의 비평으로 불린다. 페미니즘 비평은 원래 여성시각과 여성의식의 유무에 관심을 가지고 기존 문학작품과 비평에 대해 거세게 저항하고 반발하는 여성 시각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비평은 주로 이미지 비평을 통해 실현되었는데 케이트 밀레트(Kate Millet)의 『性の政治學』이나 시몬느 드 보봐르(Simone de Beauvoir)의 『제 2의 性』,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자기만의 방』 등은 페미니즘 비평의 초기 지침서로 읽힌다. 이들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폭로하고,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종속적이고 열등한 존재로 태어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해 여성들이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고 투쟁하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페미니즘 비평은 점차 여성중심비평(gynocritics)으로 옮겨 온다. 여성은 남성의 대상물이 아니라 주체이며 중심에 놓으려는 입장을 강조하며 여성의 특성과 경험에 가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여성작가연구를 통해 여성

27) 팜 모리스, 강희원(역),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7, 22면.

28) 윤동진, 앞의 책, 85면.

문학의 전통을 발견하고 정립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성작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문학적 특성을 통해 '여성성'을 추적하려는 작업은 여성해방운동가들이 버리고자 했던 기존의 여성성으로 다시 되돌아가 양성적 인간형의 추구를 부정하는 일이 된다.

또한 페미니즘 비평은 이성 중심주의(logocentrism)를 남근 이성 중심주의로 명명하고 거부하는 점에서 해체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과 맥이 닿아 있다. 이는 여성주체의 형성과정과 여성체함을 중시하며 문학비평에서 '여성적 글쓰기'를 강조한다. 기존의 언어 질서에서 여성의 누락이 당연히 되어 오고 근본적으로 부재할 수밖에 없다고 보며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여성주체의 형성과정이나 남녀 간의 신체의 차이에 주목한다.

지금까지를 정리하자면 페미니즘 비평은 남성만의 영역으로 점유되어 온 문학 비평의 역사가 과연 바른 것인지에 대한 여성들의 의문과 자각에서 출발하여 문학작품을 여성의 관점에서 보는 방법으로 여성도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자신의 고유한 판단을 훈련하는 비평을 말한다. 따라서 작가의 여성의식에 대한 연구는 페미니즘 비평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남성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성 성찰, 남성중심의 언술의 개혁, 남녀평등의 실현, 자유와 개성을 지닌 새로운 여성관의 수립,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확대, 여성의식의 흐름에 대한 문학적 통찰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한국의 페미니즘 문학은 세계사적 또는 국내적 여성운동 내지 페미니즘의 커다란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데, 즉 1920년대는 여성의 교육적 법적 지위개선과 정치적 동등권을 목표로 삼은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즉 여성운동 제 1의 물결이 완성되던 시기이다. 국내적으로는 3·1운동 이후 교육 계몽활동에 치중하면서 점진적 사회개혁을 추구해 온 자유주의적 여성운동이 활발했다.²⁹⁾

페미니즘은 우리 근대사에 상당한 열기로 수용·소개되었고, 이에 대해 여성작가들은 남성작가보다 진지하게 반응하였다. 최초의 여성문학 평론가 임순득은 1937년 『여류작가의 지위』 등에서 여성작가는 기실 남성작가와 생리적인 차이 이외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정면으로 항의서를 제출하고 여성작가의 작품을 사회주의 여성해방의식에 입각해서 비평한다.³⁰⁾ 이보다 앞서 김문집은 문학은 리비도의 발현이므로 여성은 여성성을 표현하는 예술을 낳아야 한다는 프로이트 이론에 입각한 성생리의 예술혼을 펼쳤다.

1930년대는 한국문학사에서 여성문학이 대두한 시기로 여성작가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역량 있는 작품을 들고 등단하였으며, 신교육을 받거나 일본 유학체험을 가졌거나, 일본에 체류한 적이 있는 작가가 대부분이고 교사 및 기자 등의 직업경력을 가지고 여성운동에도 소극적이거나 관련을 갖고 있었다. 그에 따라 논쟁성 비평도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이는 여성 문학비평사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30년대 후반 우리 페미니즘 문학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첫째는 사회주의 여성해방의 전망을 내장(內藏)한 운동문학(동반자 문학)이다. 운동문학을 지향한 작가는 박화성, 강경애, 김말봉을 들 수 있다. 박화성은 계급해방에 초점을 둔 소설을 쓰며 작품 속에서 적극적이고 여성우위인 여성인물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는 계급문학의 전망을 양기하면서 창작 방법의 도식성을 벗어나 여성문제를 다루는 소설을 씀에 따라 여성문제의 제시나 여성의식의 천착에는 소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강경애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에 기반을 두면서도 특히 경제적 개변에 강조점을 두는 성향을 보였다. 김말봉은 실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가치에 대해 회의해

29) 정요섭, 『한국여성운동사』, 일조각, 1971, 132-133면.

30) 서정자, 『한국여성소설과 비평』, 푸른사상, 2001, 256면.

보는 자세를 지니는 독자적인 페미니즘 문학의 영역을 개척하였다.

둘째는 여성주의 지향문학의 전개이다. 여성주의지향의 작가들은 지금까지 남성과 똑같은 시각으로 남성의 문학과 같은 수준의 문학을 낳기 위해 밖으로 돌렸던 시선을 돌이켜 여성 자신으로 향하게 하였는데, 이는 여성 문학사상 큰 의의가 있다. 여성주의지향 작가에는 최정희, 백신애, 이선희, 지하련을 들 수 있다. 최정희는 여성의 역할, 모성의 역할에 대해 역점을 두고 모성과 아동보호 문제를 다룬 작품을 쓴다. 백신애는 여성과 모성이라는 이중성과 갈등을 표출함으로써 모성이 본능에 속한다는 인식을 뒤엎고 여성이 모성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선희의 경우, 낭만성을 소설의 중요한 요소로 보며 여성의 존재확인의 문제를 문학의 본령으로 하여 여성해방의식을 지닌 신여성의 의식세계를 추적해 보여주고 있다. 지하련은 여성의 내면심리 구사와 남성들의 허위의식을 감성적 언어로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여성소설은 다수의 신인등장과 작가들의 활발한 활동이 나타난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인해 전쟁 전까지 그런 대로 기억되어 오던 여성해방 사상은 잊혔으며 전후의 소설에는 페미니즘 사상이 더 이상 논의 되지도 않았다. 이 시기 여성소설에서는 성이나 사랑의 기존 윤리를 이탈하는 여성이 등장한다. 강신재의 『바아바리 코드』에서 무능한 남편으로 인한 시골생활이 답답해 아내 숙희는 가출을 하고, 한말숙의 『신화의 단애』에서 진영은 생존을 위해 원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몸을 제공한다. 이는 전쟁으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훼손된 여인들이 성윤리 등 가치 기준의 붕괴를 재현하는 모습으로 부각되는 것이다.³¹⁾

또한 낭만적 사랑의 환상에 몰아적 탐닉을 보이기도 한다. 강신재의 『제단』, 『향연의 기록』에서는 전쟁 중에도 오직 사랑의 환상만을 쫓는

31) 위의 책, 291면.

여성들이 그려지고, 이석봉의 『빛이 쌓이는 해구』에서는 주인공이 숙명적 사랑의 포로가 되거나 사랑을 맹종하는 것이 그려진다. 이러한 성과 사랑에 대한 과도한 도착은 여성들의 자아 성찰 내지 자기정체성 추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또한 소설 공간이 집 밖으로 설정되고 있다. 즉, 여성들이 집 밖을 떠도는 것이다. 여성의 삶의 공간이 집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의 자기 탐구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인공들은 집이 상징하는 억압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 밖을 나섰지만 그 방향을 가늠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자기 탐구 대신 사랑을 맹종하는 형태가 됨으로써 진정한 자기의 내면에 이르지 못하거나, 여성 주인공들이 직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또는 자기 탐구에 나서기는 하나 자기실현 욕구가 소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1970년대의 문학에서는 60년대 뚜렷한 방향감각 없이 집 밖으로 나온 여성들이 자신들의 실체에 눈을 돌리고 일차적으로 남성을 대상화하여 여성적 삶의 모습을 말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소설은 첫째, 송원희의 『화사』, 박순녀의 『마리아의 간통』, 김진옥의 『나신』의 이야기 같이 남성 중심주의의 폭력성을 고발한다. 이 작품들에서 남성은 여성에게 철저한 복종과 순결만을 요구한다. 둘째, 박완서의 『어떤 나들이』, 『지렁이 울음소리』, 서영은의 『살과 뼈의 축제』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일상에 파묻힌 여성적 삶에 반란을 꾀한다. 이 작품들에서 소외의식을 느낀 여성은 자신의 삶을 회의하거나 일반적인 여성의 삶을 거부한다. 셋째, 박시정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여성학적 여성의 삶에 회의하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박시정은 해외에서의 여성의 삶을 통해 여성으로 자각하고 사는 삶이 오히려 여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소설에 담고 있다. 『물주는 소년』, 『새들은 일하러 가지 않아요』와 같은 그의 작품은 여성문제와 모

성문제를 생각해 보고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1970년대의 여성소설에서 페미니스트 의식의 일단을 발견할 수 있는 소설을 적지 않게 만나 볼 수는 있으나, 아직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³²⁾

1980년대부터 여자대학에 여성학 강의가 개설되고, 80년대 후반 제기된 페미니즘 비평은 외국 이론의 도입과 문단 외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는 문학비평의 새로운 시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성으로 하여금 여성의 현실을 논리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페미니즘 문학론의 영향으로 작품이 쓰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페미니즘 문학비평의 대상이 되었던 여성작가는 그리 많지 않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여성작가들도 활발한 활동을 하며 문단의 중심부를 장악한다. 특히나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에서는 세명의 대학동창인 여자들이 겪는 결혼생활의 현실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내재한 성차별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문학 비평에서도 페미니즘 비평은 더 이상 새로운 비평적 경향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문학지의 특집란에서 빠지게 되는 반면 그간의 업적이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정리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페미니즘 비평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모임은 4개의 그룹이라 할 수 있다. 첫째는 여성운동을 사회 전반의 변혁운동으로 보며 여성해방문학을 통해 기존의 민족 민중문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고양시킬 수 있기를 소망하는 '한국여성연구회'(현재는 '여성사연구회'로 개편됨)의 활동이다. 이들은 여성으로서의 독해를 최초의 실천 비평으로 열어 보인 선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실천비평의 표본을 원했던 국내 페미니즘 문학 지망자들에게 상당한 몫의 기여를 했다고 판단된다.³³⁾

32) 위의 책, 298면.

33) 송지현, 『페미니즘 비평과 한국소설』, 국학자료원, 1996, 35면.

둘째는 '가부장제 문화를 집중 공략하고 대안의 문화를 창조하는데 관심을 두고 우리 생활 전반에 여성문화가 창조되기를 소망하는 또 '하나의 문화' 동인의 활동이다. '또 하나의 문화'는 타계한 고정희 시인과 연세대 조혜정 교수, 이대 장필화 교수, 서강대 조옥라 교수 등이 주로 편집을 주도하고 주제에 따라 많은 대학원생이나 일반인들이 참가했다가 흩어지는 유동성 있는 조직이다. 가부장제 문화라는 현실적인 주제를 다룸에 따라 페미니즘 문학 연구자들에게 많은 현실 감각과 소재를 제공한다.

'또 하나의 문화'는 기존 제도 비판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위해 끊임없이 모색하는 점이 가장 탁월한 점이다.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금기인 성과 사랑의 문제를 표면으로 끌어내 여성문제의 핵심으로 짚어낸 점도 큰 성과였다.³⁴⁾

셋째는 한국여성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각 분야에서 여성시각을 자극하고 장려하려는 통합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여성학회'의 활동이다. 한국여성학회는 이대 여성학과가 주축이 되어 각 대학의 여성학, 사회학, 간호학, 가정학, 철학, 사학, 교육학, 영문학, 국문학 연구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대규모 전국 학회로 각 전공자들이 질의와 토론을 통해 활발한 학문적 교류를 이루게 하는 장점이 있다.

넷째로는 기존 문학사에서 소외되어 온 여성작가의 발굴과 작품 소개, 재평가 등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여성문학연구회'를 들 수 있다. 신라대 정영자 교수, 부산대 김정자 교수, 부경대 송명희 교수가 주축이 되어 이끌어 가고 있으며 네 단체 중에서 가장 문학중심적인 한편 여성 시각의 부각에는 가장 온건하다.

34) 또 하나의 문화 편집부, 「새로 쓰는 사랑이야기」, 「새로 쓰는 성 이야기」, 『또 하나의 문화』 7;8집, 또 하나의 문화, 1987, 106면.

2. 페미니즘 비평의 이론적 기초

가. 여성이미지 비평

여성 이미지 비평은 여성해방운동에 영향을 받은 미국 대학의 영문과 대학원생들이 ‘여성의 눈’으로 독서하고자 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여성 이미지 비평은 여성해방의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출하는데 여성독자의 성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비평이다. 남성과 여성은 생활경험, 추구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무시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방법론의 대표적인 업적은 메어리 엘만(Mary Ellmann)의 『여성에 관한 고찰』(Thinking about Women, 1968)과 케이트 밀레트(Kate Millet)의 『성의 정치학』(Sexual Politics, 1970), 주디스 패털리(Judith Fetterly)의 『저항하는 독자』(The Resisting Reader, 1978)이다.³⁵⁾

밀레트는 남녀문제를 성의 권력투쟁으로 파악하고 작품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통찰하였다. 그녀는 남녀관계를 지배/피지배로 파악하였는데 D.H로렌스, 헬리 밀러, 노만 메일러, 중 주네의 작품분석을 통해 여성에 대한 편견을 예리하게 통찰하였다. 그의 이러한 연구는 그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성에 대한 편견을 찾아내어 지적함에 따라 문학비평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로렌스는 실상 ‘남근 숭배 의식의 전도사’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며 가부장제에 도전하는 여성의 힘과 질서에 강한 믿음을 보였다.

메어리 엘만은 『여성에 관한 고찰』(1968)을 통해 여성적인 불확실성과

35) 송지현, 앞의 책, 15면.

유동성이야말로 문학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요소라고 주장하였으며, 남성 중심적 사고에 의한 비평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들의 영향으로 1970년대 초반부터는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 연구가 영미에서 붐을 일으키게 되었고 1972년에는 21명의 필자가 참여한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Images of Women in Fiction : Feminist Perspectives)라는 책이 출판되기도 했다.

여성 이미지 비평은 기존의 문학 작품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왜곡된 여성 이미지가 반영된 상투적 여성상에 반발하였다. 메어리 엘만은 남성작가나 비평가에 의해 제시된 전형적인 여성이미지를 부정형성, 수동성, 불안정성(히스테리), 제한성(편협함), 실용성, 순결성, 물질주의(현실성), 정신주의(공산성), 비합리성, 순종성, 반항성(말괄량이, 마녀)의 열 한가지로 요약한다. 또한 서구 문학에 나타난 여성은 가사와 육아에 속박해 놓고 집안의 평화를 위한 순종적인 천사와 남성의 권위에 도전하는 주체적 여성인 마녀로 양극화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여성인물을 천사와 마녀로 이분시켜 놓은 것은 서구 사회 뿐 아니라 동양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현대의 대중문화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여성인물의 스테레오 타입을 형성한다.³⁶⁾

여성이미지 비평가들은 동화에서 남성 중심주의의 전제를 찾아내는 것에도 관심을 가졌다. 카렌 로우(Karen Rowe)는 동화를 통해 여성들은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사랑에 빠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갖는 것이라는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에게 현실적인 성적 기능에 적합한 동경을 내면화하게 된다고 보았다. 마르시아 리베르만(M.Lieberman)은 동화는 여성을 전통적 모델로 문화화 시키는데 봉사하는 여성 교육수단이라고 하였다. 여자아이들은 백설공주, 라퐁젤, 신데렐라처럼 온순하고 무력하게

36) 정순진, 「여성주의 문학이란 무엇인가?」, 『한국문학과 여성주의비평』, 국학자료원, 1992, 200-201면.

왕자의 구원을 기다리거나 남성들이 아름다움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므로 예뻐지기를 원하고 예뻐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여성 이미지 비평은 가장 쉽게 접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많은 여성 독자들의 소모임이나 여성단체의 독서법으로 활용되며 그 대상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즉, 현실적인 관심사들을 빠르게 포착하며, 대중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 비디오물이 분성 대상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하고 마냥 양성적이고 이상화된 여성인물만을 그려내는 것이 과연 이상적인 페미니즘 문학인가 하는 점은 재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성이미지 비평은 여성 인물이 적극적이고 강한 자립적 태도를 보여 해방된 여성의 모델을 제기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비저문적 독자들이 모든 문학작품을 여성학 자료로 활용하는 탓에 자칫 작품에 대한 심층적인 독서나 총체적 접근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즉, 문학성과는 관계없이 메시지가 강한 작품이 가장 우월한 작품으로 평가되는 독법이 성행할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 외에 초기의 문제 제기로는 신선하지만 반복적이고 뻔한 지적들이어서 동어반복의 단조로움이 생기고,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이 아니면 적용 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진다.

여성 이미지 비평은 폭넓은 관심과 강도 높은 목소리를 통해 남성 중심적 시각에 의한 해석과 평가로 국한되어 있던 작품 감상에 많은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문창작과 비평에 여성 시각을 독려하였다.

나. 여성작가 비평

남성의 텍스트 고발을 주된 과제로 삼아 강한 분노를 표출하던 여성이미지 비평은 여성을 중심에 놓고 그동안 묻혀있던 여성의 텍스트를 발굴하고 재평가하는 여성중심비평(Gynocritics)으로 이행하였다.

여성중심비평은 엘레인 쇼왈터(Elaine Showalter)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엘렌 모어스(Ellen Moers)의 『문학적 여성들』(Literary Women, 1977)과 패트리시아 메이러 스팍스(Patricia Mayer Spacks)의 『여성이 상상력』(The Female Imagination, 1976), 그리고 쇼왈터의 『그녀 자신들의 문학』(A Literature of Their Own, 1977)과 『황무지에 있는 페미니스트 비평』(Feminist Criticism in the Wilderness, 1981), 길버트(Sandra Gilbert)와 구바(Susan Gubar)의 공저 『다락방 속의 미친 여자』(The Madwoman in the Attic, 1979) 등이 방향전환을 보여주는 저술들이다.³⁷⁾

여성작가 발굴과 재평가는 여성문학의 전통 확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다. 소설 쓰는 것을 감추거나 남성의 필명으로 작품을 써야 했던 여성작가들, 특히 남성들에 비해 사생활이 쉽게 들춰지며 그것이 전인격적 평가로 확산되는 수난을 겪어야 했던 그들의 작품에 대해 남성문학사의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무의미하다. 활동 범위가 제한되고 체험 영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재나 주제의 차이를 열등함의 증거로 삼는 비판 척도는 변해야 한다.³⁸⁾

쇼왈터는 여성문학이 발전해 온 단계를 셋으로 나눈다.

첫째, 지배전통의 지배적 양식을 ‘모방’하고, 지배문화의 예술규범과 그것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견해를 ‘내면화’시키던 단계가 있었다. 둘째, 그러한 규범과 가치들에 대해 ‘저항’하고, 소수의 권리와 가치와 자주성을 ‘옹호’하던 단계가 있었다.

37) 송지현, 앞의 책, 19면.

38) 위의 책, 41면.

마지막으로, 반대에서부터 벗어나 정체성을 찾아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던 ‘자아 발견’의 단계가 있었다.³⁹⁾

첫 번째 단계는 글 쓰는 것 자체를 조심해야 하며 남성들의 규범과 가치관을 모방했던 ‘여성적(feminine)단계’이다. 두 번째는 여성작가들이 자신의 부당한 위치에 항의하며 외면당해왔던 여권(女權)을 주장하는 ‘여성 해방적(feminist)단계’이다. 세 번째는 여성의 독특한 경험과 특성에 가치를 두고 이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여성의(female)단계’이다. 쇼왈터는 현대 페미니즘 비평이 세 번째 단계로 전이된다고 보고 이를 ‘여성중심비평(gynocritics)’라고 하였다.

길버트(Sandra Gilbert)와 구바(Susan Gubar)의 공저 『다락방 속의 미친 여자』는 19세기 주요 여성작가들에 관한 고찰을 통해 여성문학의 전통과 여성의 저술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19세기 여성 작가들은 진정한 의도를 표피 속에 감추는 글쓰기 전략을 택하고 작품 내 ‘미친 여자’를 등장시켜 그 미친 여자의 폭력을 통해 남성의 집과 남성의 텍스트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저자 자신의 욕구가 분출된다는 것이다.

애닛 콜로드니(Annette Kolodny)는 미국과 캐나다의 현대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이 작가들에게서 특수한 주제의식, 이미지 유형, 문체상의 고안들이 드러나도록 목록을 만들고, 남녀 작가의 상이한 경험은 상이한 형상으로 표현되므로 비평가는 그러한 형상 배후의 다른 경험을 찾아내야 한다고 하였다. 콜로드니는 ‘차이’란 우월과 열등의 문제가 아니라 동등하면서도 상대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성별 분리주의가 폐

39) Elaine Showalter, 『A Literature of Their Own』, Princeton Univ. Press, 1977, 13면.
(송지현, 위의 책 재인용, 21면.)

지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여성작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여성문학의 전통과 특성을 규명하려는 여성중심비평은 이미지 비평에 비해 훨씬 문학비평답다. 그리고 남성과의 직접적인 투쟁보다는 여성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미 많은 여성 작가들이 활발한 글쓰기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여성 작가를 연구하는 데는 충분히 활용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여성적 전통에 따르지 않는 여성작가는 관심 밖으로 밀려날 우려마저 있다.

그러나 여성중심비평은 여성문학 연구가 기존의 남성 작가중심의 연구풍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작가를 중심에 놓는 여성 중심의 비평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⁴⁰⁾

다. 여성적 글쓰기

안네트 콜로드니(Annette Kolodny)는 여성만의 차이성을 강조하는 여성중심비평은 자칫 독선으로 흐를 수 있음을 경고하며 남성문학과와의 상대적 관련 하에서 여성문학을 연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남성과 구별되는 여성성을 상징화 하는 것은 역사, 계급, 문화, 인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여성문화를 보편화하는 것은 남녀 평등한 교류 자체를 차단시키는 역기능을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문학에 대한 연구도 남성문학과 구별되는 독자적 범주로 여성문학을 추출해 내는 방식 대신 남성문학과 의 상대적 관련 속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⁴¹⁾

40) 김혜옥, 『페미니즘 이론과 한국 현대 여성소설』, 박이정, 2005, 67면.

41) 장윤정, 『현대 페미니즘 소설 연구 : 여성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는

이러한 콜로드니의 ‘페미니즘적 비교주의’를 경계하면서 1980년대에 들어 데리다의 해체론과 라캉의 정신분석학에 비탕을 둔 일단의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이 여성문학의 차이성을 이론화하려고 시도하게 되는데, 이를 ‘여성적 글쓰기’비평이라고 한다. 여성적 글쓰기는 여성의 삶에 형식을 부여함으로써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세계를 창조하여, 자신의 삶을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자아정체성을 구성하는 언술행위를 말한다. 때문에 “여성적 글쓰기는 여성 텍스트의 개념을 토대로 하면서 여성 고유의 특성이나 잠재력의 영역을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다.”⁴²⁾ 즉, “여성들은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존재론적 질문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억압받고 있는가라는 자의식적 질문에 기초하여 글을 쓰기 때문에 글을 쓰는 행위가 남성과 다르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다.”⁴³⁾

여성적 글쓰기를 실천했던 프랑스 작가들은 모니크 위티그의 『레즈비언의 육체』, 루스 이리가레이의 『반사경, 다른 여성에 대하여』, 『하나이지 안은 성』,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중국여성』, 엘렌 식수·카드린 클레망의 『새로 태어난 여성』 등이 있다. 또한 프랑스 탈구조주의자들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로고스 중심주의에 복종하지 않는 글쓰기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들 여성적 글쓰기의 전략은 글쓰기를 남성 아방가르드의 전유물에서 해방시켜 보통 여성들의 표현 영역으로 만들어 말 중심주의를 거부하고 문자중심주의를 향한 교두보가 되고자 하였다.⁴⁴⁾

1980년대에 접어들자 그동안 여성문화와 전통을 발견하고 복원하는 일에 몰두해 왔던 미국의 페미니즘 비평가들은 자신들의 작업에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첫째는 여성의 경험을 중시했던 여성중심비평은 남성의 언술

문, 1999, 11면.

42)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30면.

43) 김성례, 「여성의 자기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견을 위하여」, 『또 하나의 문화』 9호, 또 하나의 문화, 1992, 123면.

44) 프랑스학회, 『프랑스 페미니즘 문학』, 『프랑스학 연구』, 어문학사, 2003, 62면.

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여성의 고립을 빚어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남성적 언술의 패러다임 자체를 수정, 전복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둘째는 언어는 리얼리티 그 자체를 구성하며 또한 주체도 언어 속에서 구성되어진다는 후기 구조주의자들의 주장으로 여성의 언술에 대한 환기와 자각, 그리고 언어와 언술에 있어서의 혁명 없이는 여성해방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게 했다.

프랑스 페미니즘 이론에 관심을 가지게 된 미국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정체성과 성적 특성에 기초하는 ‘여성적 글쓰기’를 프랑스 페미니즘의 주류로 인정한다. 그들은 시몬드 드 보바르, 베티 프리단, 케이트 밀레트가 주장하는 헤게모니 쟁취 투쟁이 결국 페미니즘을 또 다른 권력 담론으로 작용하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남녀의 동일시나 평등보다는 여성의 차이, 여성성을 강조하며 여성만의 담론을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엘렌 식수나 이리가레이의 인식에 동참한다.

남성의 지배 언술을 전복하고 권력의 중심을 해체할 수 있는 혁명적 글쓰기가 될 수 있는 여성적 글쓰기(ecriture feminine)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주변주의 복원(감성, 자연, 여성성)이라는 측면에서 성적 구별을 넘어서 인간의 글쓰기로 부각되고 있다.

여성적 글쓰기는 남성 텍스트처럼 일직선적 논리구조에 단혀진 텍스트가 아니라, 유동적이고 시적이며 의미가 다양하게 열려 있다.⁴⁵⁾ 이는 여성 성욕의 특징에서 기인하는데 남성의 성욕이 남근 하나로 집중되어 있다면 여성의 성욕은 신체의 각 부분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적 글쓰기도 단일한 의미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열려져 있는 것이다.

미국의 낸시 초도로우(Nancy Chodorow)는 프로이트 이론⁴⁶⁾을 비판하며

45) 김해옥, 앞의 책, 69면.

46) 프로이트는 아들과 딸의 성별 정체성은 오이디푸스 단계에 이르러 형성되며 아들은 아버지, 딸은 어머니와 동일시를 이루게 된다. 이때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시를 통해 초

딸과 아들의 성별 정체성은 아이가 어머니와 맺는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는데 오히려 딸이 훨씬 긍정적으로 동일시를 이루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딸은 어머니와 연장선상에서 자아를 발전시키지만 아들은 점차 분리되어 개별성과 타자성이 길러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초도로우의 분석에 근거하여 여성비평가들은 작품속의 여주인공은 ‘작가의 딸’이라는 은유적 가설을 성립시켜 여성특유의 서사 전략을 분석하기도 한다.⁴⁷⁾

하지만 이들이 관계 지향적이고 객체와 융합하는 성격을 띠는 여성경험의 전범으로 삼은 것은 육아와 가사노동 그리고 모성성이며 이를 근거로 한 여성주체의 형성과정이다. 이는 여성이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존재라는 기존의 관념을 오히려 공고히 하는 폐단이 있다.

1970년대 여성적인 것의 차이를 강조하는 프랑스 페미니즘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도전적인 여성적 글쓰기를 제창하는 이론가는 엘렌 식수(Helene Cixous)이다.⁴⁸⁾

엘렌 식수가 말하는 여성적 글쓰기는 식수 자신에 대한 구명과 구원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를 실천함으로써 여성으로서의 긍정적인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열쇠이다. 『메두사의 웃음』, 『글쓰기로 나아가기』, 『새로 태어난 여성』 등 그의 저서에서는 다변적이고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문체를 사용하여 그녀의 이론을 입증하는 여성적 글쓰기 이론을 펼친다.

현재로서는 글쓰기의 여성적 실행을 정의내리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자아를 형성하지만 딸은 아버지와 동일시를 이루지 못해 초자아 형성이 빈약하게 이루어져 자기검열이 부족하며 감정적이고 변덕스럽다는 이론을 내세웠다.

47) 정순진, 앞의 책, 212면.

48) 윤동진, 앞의 책, 92면.

실천이 결코 이론화될 수 없고, 폐쇄적이지 않고 약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성적 글쓰기>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여성적 글쓰기는 언제나 남근 중심체계가 지배하는 담론을 초월한다. 철학적-이론적 지배에 종속되어 있는 영역과는 다른 어떤 곳에서 여성적 글쓰기가 이루어진다... 여성은 자신을 내버려두고 비상하며 완전히 자신의 목소리로 들어가고 자신의 몸으로 활기차게 여성의 육체는 진실을 말한다. 여성은 자신을 드러낸다. 진정으로 여성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육체로 구체화시킨다. 여성은 자신의 육체로 의미를 전달한다.⁴⁹⁾

엘렌 식수는 남성적 글쓰기와 여성적 글쓰기를 대조하였다. 엘렌 식수는 '글쓰기에 대한 여성적 실천을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한계도 중심도 모르는 여성의 리비도와 남근 중심적인 남성의 리비도를 대비시킴으로써 여성의 육체를 중심으로 한 유동적이며 다원적인 여성적 글쓰기의 가능성을 조망한다.⁵⁰⁾ 식수는 『출구』라는 에세이에서 이분법적 개념의 쌍들을 일부 목록으로 작성했다. 이 때 남성은 능동적이고 문화적이며 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면과 연관되며 여성은 수동적이고 자연적인 부정적인 것과 연관된다.

엘렌 식수는 남성적 글쓰기는 남근 말씀 중심의 글쓰기로 상징적 질서 밖에 존재하는 복수성과 무질서가 두려워 규정된 구조 속에 사고를 담지만 여성적 글쓰기는 복수적이며 다양하면서 리듬감이 있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다. 여성적 글쓰기는 단순히 사회·문화적 규범들의 변형을 위한 선행적 움직임으로 전복적 사고를 위한 도약의 공간인 변화여성들에게 남성이 구축해 놓은 세상에서 벗어나 자신들을 글로 표현할 것을 요구하며 표시하기, 낙서하기, 휘갈겨 쓰기, 메모하기와 같은 여성적 글쓰기의 종류

49) 엘렌 식수, 이봉지(역), 『새로 태어난 여성』, 나남, 2008, 242면.

정경호, 『탈근대 인식과 생태학적 상상력-쉬움의 미학과 퍼트림의 정치학에 관한 에세이』, 한신문화사, 1997, 327면 재인용.

50) 프랑스학회, 앞의 책, 62면.

를 제시하였다.

벨기에 출신으로 라캉의 연구소에서 일하다 퇴출당한 정신 분석가인 루스 이리가레이(Luce Irigaray)는 급진적인 방식으로 정신분석학에 도전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두 가지 목적을 지닌다. 하나는 의미체계(상징계) 내부에 각인되어 있는 남성적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에게 긍정적인 성 정체성을 제공할 수 있는 여성적 의미질서를 구성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리가레이는 서구사상에 내재된 ‘동일성의 논리’에 중심을 둔다. 동일성의 논리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개의 성이 기준이 되는 하나의성, 즉, 남성으로 와해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프로이트의 ‘남근선망’이 이를 가장 잘 보여주며, 그의 논리에 따르면 여성의 정체성을 단지 결핍으로 규정될 수 있을 뿐이다. 이리가레이는 “단 하나의 성기관(남근)만을 강조하는 시도와 단 하나의 진리에 특권을 부여하는 시도가 유사하다”⁵¹⁾라고 지적하는데 이는 데리다의 해체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성/감성, 남성/여성, 정신/육체, 의식/무의식 등과 같은 이항대립구조에 입각하여 이성을 진리의 중심에 위치시켜 온 것을 로고스중심주의(logocentrism)’이라고 하는데 이리가레이는 남근중심주의가 로고스중심주의를 함축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남근의 현존으로서의 남성성은 반대항에 놓인 여성성을 결핍이나 부재로 규정할 때만 그 완전성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리가레이는 여성의 글쓰기를 여성의 생식기 구조로 설명한다.

51) 팸 모리스, 강희원(역), 앞의 책, 194면.

여근은 서로 항상 붙어 있기 두 입술이란 점에서 이미 완전하며, 타자를 그 자체의 몸속에 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성은 타자 지향적이며 복수적이다. 따라서 여성의 언어 역시 남성적 언어처럼 일직선적 논리구조에 닫혀 있지 않고, 복수적이며, 유동적이라고 한다.⁵²⁾

이는 남성의 성욕이 남근 하나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에 비해, 여성의 성욕은 입술, 음핵, 목, 가슴 등 몸의 각 부분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에서도 연유하며, 이리가래에는 이러한 여성적 육체, 여성적 성욕의 특성을 바탕으로 ‘몸으로 글쓰기’ 주장을 한다. “이리가래이는 여성의 문체를 ‘촉각’과 ‘액체성’과의 친밀한 관계에 의해 정의 내린다. 그녀에 의하면 시선의 우월성에 기초한 남성적 사유를 대체하는 것이 여성의 촉각이다.”⁵³⁾ 남성의 성욕성이 시각에 있다면 여성의 성욕성은 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비한 황홀경 속에서 서로를 만지고 느끼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촉각이 중심이 되는 여성의 언어는 텍스트를 유동적이며 시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남성 중심 질서에 의해 구성되어진 기존의 관념, 형식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는 엘렌 식수나 이리가래이와는 약간 다른 색조를 띤다. 그녀의 이론은 현대 페미니즘 이론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본인 자신은 페미니스트라는 명칭을 거부하고 여성적 글쓰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

만일 소위 오늘날 “글쓰기”라는 경험을 급진화하고, 다시 말해서 철저한 고소를 제기하고, 언어에서 의미와 말하는 주체를 불안정하게 보다는 다의적으로 재구성 하는데 그친다면, 그 어느 것도 여성적 글쓰기가 존재한다고 단언할 수 있게

52) 최동현·임명진, 『페미니즘 문학론』, 한국문화사, 1996, 16-17면.

53) 김미현, 앞의 책, 58면.

해주는 것 같지 않다.(…)

반면에, 간혹 여성들이 쓴 책에서 문체와 주제상의 특성을 식별할 수 있고, 그 특성들에서 여성들과 글쓰기의 특수한 관계를 끌어내려고 할 수 있으리라.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특성에 관해 말하자면 그것이 전적으로 여성적 특성에 속하는지, 사회-문화적 주변성에 속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어떤 (예를 들어 히스테리성의) 구조, 여성의 잠재력 전체에서 현대 시장이 좋아하는 구조에 속하는지 말하기는 어려운 듯하다.⁵⁴⁾

크리스테바의 경우 글쓰기 차원에서 근원적 성차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그녀의 이론을 점검함에 있어 여성적 글쓰기의 규정이나 페미니즘의 실현에 대한 고찰이 아니라, 그녀의 신념과는 별도로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참조하고 원용하는 그래서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의 구현이나 그 실천에 도움과 자극을 주는 분야의 이론에 대한 선별적 고찰이 될 것이다.⁵⁵⁾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라캉의 이론⁵⁶⁾을 비판하며 여성 언어를 상징 질서인 남성 언어 안에서 침묵당한 채 억압되어 있는 차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녀에게 있어서 주체는 분열되어 동적인 과정 속에 있는데 기호학적(semiotic)인 단계와 상징적(symbolic)인 단계로 구성되며 이 두 영역이 교차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어머니 중심적인 기호계의 담론은 상징 언어 속의 침묵, 부재, 파열, 모순으로 존재하는 무의식적 혁명 세력이 된다고 보았는데 이것을 코라(chora)라고 부르며 이 코라의 언어가 여성성이라는 것이다.

이들에게 여성적 글쓰기란 여성성의 개념을 갖고, 기호학적 세계의 기묘

54) 줄리아 크리스테바, 김인환(역), 『시적언어의 혁명』, 동문선, 2000, 149면.

윤동진, 앞의 책, 96면, 재인용.

55) 위의 책, 96면.

56) 라캉은 성별의 인식, 언어획득, 상징계로의 진입은 동시에 일어나며 아버지, 즉 남근(phanllus)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진 어머니의 상실과 부재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하고 전위적인 언어배열을 시도하여 문학적 언어질서의 긴장을 높이고, 그 생명을 재활성화하려는 노력이다. 그래서 저자의 생물학적 성이 아닌 글쓰기의 성을 중시하고 여성 혹은 여성성도 상징계에서 억압된 무의식을 가리키는 은유일 뿐 실제 여성과는 무관하다고 본다.

여성적 글쓰기는 자의식에 기초해서 시작되는 특징을 갖는 한편 무형식을 지향하며 여성의 파편화된 삶의 조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여성 경험의 주변화에 도전하는 여성의 언어는 권위적 언어에 저항하는 언어이며, 그 표현 양식 또한 탈 중심적이고 탈 구조적이며 일탈적이다. 그래서 총체성을 추구하는 대서사가 아니라 다중적 주체의 이견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소서사를 지향한다.

여성적 글쓰기는 여성의 언어적 소외를 극복하고 공적, 사적 자아의 분열을 뛰어넘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고 각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을 열어 자기표현을 함으로써 스스로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새로운 문체의 시도와 정립을 통해 기존의 문학 언어를 자극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⁵⁷⁾

57) 송지현, 앞의 책, 56면.

Ⅲ. 여성적 글쓰기와 문학교육

문학은 인간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문학과 인간 사이에는 매우 엄격한 상동관계가 성립한다. 때문에 문학은 인간의 삶과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상과 감정을 중요한 속성으로 한다. 독자는 문학을 읽는 과정에서 문학과 더불어 즐기면서 자아를 발견하고 세계를 인식하며 현실을 상상력으로 초월하여 가능한 모델을 구축한다.⁵⁸⁾ 이 과정에서 독자는 이정한 정서적 감응을 일으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유용한 준거 틀로 삼는다.⁵⁹⁾

문학교육은 교과서에 수록된 대부분 ‘정전’으로 평가 받고 있는 작품들로 학생들에게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더불어 올바른 가치관과 자아형성을 하도록 돕는다.

특히나 소설의 경우 인물의 행동들이 조직하는 이야기를 서술자가 개입하여 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므로 서술자의 가치관이 비교적 직접적이고 동시적이다. 때문에 독자의 입장에서 서술자의 존재와 세계에 관한 인식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다양한 등장인물의 제시를 통해 독자의 자아성찰을 촉구한다. 즉, 독자는 소설의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등장인물의 속성을 내면화하거나 반대로 등장인물을 통해 객관적으로 발견한 자신의 일부와 분리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아탐구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문제는 현 소설 교육의 경우 다분히 남성 중심으로 짜여있어 여학생들의 자아 형성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58) 구인환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94, 25면.

59) 김중신, 『한국 문학교육론의 방법과 실천』, 한국문화사, 2003, 73면.

남성과 여성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남아 있는 사회에서 올바른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별에 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2007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을 개정한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초·중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개편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중등학교 <국어>의 경우, 그동안 국정 교과서로 개발, 발행하였던 방식을 검정 체제로 전환하였다.⁶⁰⁾ 그리하여 2011학년부터 고등학교 <국어>과목에서 검인정 교과서를 적용되어 각 학교별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과서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양성평등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새롭게 적용된 검인정 교과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고등학교 검인정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에 나타난 여성상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그러나 고전 작품의 경우 여성 작가의 활동이 극히 제한적이었음을 감안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교과서 분석

교과서는 학생의 교육경험이 성에 따라 달라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오랜 유교적 전통에 의해 그동안 남녀 간의 성차별이 의심이나 비판의 여지가 없는 도덕 윤리로 자리 잡아 왔기 때문에 양성평등에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성차별적인 내용이 교과서

60)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집필 기준』 2007-79호, 교육과학기술부, 2009, 1면.

에 그대로 반영되어 재생산될 가능성이 많다.

마싸 메뉴(Martha Matthews)와 셸리 맥쿤(Shirley McCune)은 교수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 편견을 1) 여성 배제, 2) 양성의 정형화, 3) 여성 종속과 비하, 4) 여성에 관한 자료 분리, 5) 현대사회문제에 대한 피상적인 관심, 6) 한 문화에서 능동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문화적 부적절성의 6가지로 유목화 하여 제시하였다.⁶¹⁾ 이와 같은 성 편견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교과서에 내제되어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 중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인 <국어> 과목은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되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로 하여금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 능력을 기르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화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문화적 소양을 갖추게 하는 과목이다. 따라서 <국어> 교과서는 이러한 과목의 성격에 부합하고 교육과정에 충실하며 학습자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오재림은 양성평등관점에 기초한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및 교과서 심의기준 마련에 관한 정책 연구에서 기존의 문헌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극적 양성평등과 적극적 양성평등으로 구분하여 교과서 초등교과서 심의 기준안의 구성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표1> 국어 교과서 심의기준안의구성 내용⁶²⁾

관심분야	관심영역(대분류)
소극적인	1. 작가의 성별

61) 오재림, 앞의 책, 17면 (참조).

62) 위의 책, 15면.

양성평등	2. 성별분포
	3. 성별비중
	4. 성별특성
	5. 성역할
	6. 남녀지위 및 관계
적극적인 양성평등	7. 교과서에 사용되는 언어문제
	8.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별분업에 대한 기술과 시각의 문제
	9. 양성평등에 관한 의식교육

비록 초등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심의기준안이지만 자아 정체감이 확립되는 시기인 청소년들의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심의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양성 평등 교육을 위한 문학(현대소설) 영역의 교육을 연구함에 따라 <국어> 교과서의 내용 중 문학 영역의 집필 기준과 제재선정을 바탕으로 검인정 교과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 개정 검인정 국어교과서 16종⁶³⁾에 소개된 현대소설은 총 58편이며 작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 <표2> 개정 검인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작가별 현대소설 현황

편수	작가	작가 성별	작 품	출판사별 수록 빈도
1	김원일	남	도요새에 관한 명상	1
2	박완서	여	겨울나들이	1

63) 16종 국어교과서 목록 : 미래엔컬처그룹, 교학사, 지학사(박갑수), 지학사(방민호), 디텍스트, 금성출판사, 천재교육(김대행), 천재교육(박영목), 천재교육(김종철), 창비(문영진), 디딤돌, 유웨이중앙교육, 비상교육, 두산동아, 좋은책신사고, 해냄에듀

3			배반의 여름	1
4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1
5			나목	1
6	채만식	남	태평천하	8
7			탁류	1
8			소년은 자란다	1
9	염상섭	남	만세전	2
10			삼대	1
11	이청준	남	눈길	4
12			선학동 나그네	1
13	윤후명	남	하얀배	1
14			모든 별들은 음악소리를 낸다	1
15	은희경	여	빈처	1
16	윤홍길	남	종탑 아래에서	1
17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1
18	하근찬	남	수난이대	1
19	최인훈	남	광장	3
20	김유정	남	동백꽃	4
21			봄봄	3
22			금 따는 콩밭	1
23			만무방	1
24	황석영	남	아우를 위하여	2
25			삼포 가는 길	1
26	현진건	남	술 권하는 사회	1
27	김훈	남	칼의 노래	1
28	이태준	남	달밤	2
29			돌다리	1
30			꽃나무는 심어놓고	1

31	윤대녕	남	말발굽 소리를 듣는다	1
32	조세희	남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2
33	구효서	남	이발소거울	1
34	이문구	남	관촌수필	2
35			우리 동네 황씨	1
36			무진기행	1
37	이효석	남	메밀꽃 필 무렵	6
38	이범선	남	표구된 휴지	1
39	공지영	여	즐거운 나의 집	1
40			봉순이 언니	1
41	이순원	남	아들과 함께 걷는 길	1
42	황순원	남	소나기	1
43			물 한 모금	1
44	최인호	남	상도	1
45			타인의 방	1
46	주요섭	남	사랑손님과 어머니	1
47	박태원	남	천변풍경	1
48	배수아	여	그 사람의 첫사랑	1
49	이문구	남	유자소전	2
50	신경숙	여	외딴방	1
51			엄마를 부탁해	1
52	이광수	남	무정	2
53	이 상	남	날개	1
54	김정현	남	아버지	1
55	박경리	여	토지	1
56	성석제	남	황근만은 이렇게 말했다	1
57	김소진	남	눈사람 속의 검은 향아리	1
58	최명희	여	혼불	1

			수록된 현대소설의 총 편수	87
--	--	--	----------------	----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제재선정 시 유의 사항으로 ‘(6) 작가가 성별, 지역, 시대, 이념 등의 측면에서 특정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작품을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학생의 창작물을 선택할 수 있다.⁶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표2>에서와 같이 국어교과서 16종에 수록된 현대소설 87편(중복수록 횟수 포함) 중 여성작가의 작품은 총 7명의 12편으로 14%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채만식의 『태평천하』 8곳,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6곳, 김유정의 『동백꽃』 4곳 등 남성 작가의 작품은 여러 출판사에 수록된 반면, 여성작가의 작품의 경우 여러 출판사에 중복으로 소개된 경우가 단 한 편도 없다. 이는 현대소설 중 교과서에 실리는 정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작품이 남성작가의 작품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교육과정은 국어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정교과서로 변경된 첫 시점이다. 그런 만큼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6종 교과서의 출판사별 여성작가의 소설 수록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표3>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소설 중 여성작가의 작품 현황

출판사	남	여	소계	여성 작가 수록작품
좋은책신사고	5	2	7	겨울나들이(박완서), 그 사람의 첫사랑(배수아)
미래엔컬처	3	1	4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박완서)
천재교육(박영목)	5	1	6	빈처(은희경)
금성	4	0	4	

64)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19면.

천재교육(김종철)	5	1	6	나목(박완서)
디딤돌	6	0	6	
지학사(방민호)	5	0	5	
해냄	10	0	10	
두산	7	2	9	엄마를 부탁해(신경숙), 혼불(최명희)
천재교육(김대행)	4	1	5	토지(박경리)
비상	3	0	3	
더 텍스트	3	1	4	즐거운 나의 집(공지영)
교학사	1	2	3	봉순이언니(공지영), 배반의 여름(박완서)
유웨이	7	0	7	
지학사(박갑수)	5	0	5	
창비	2	1	3	외딴방(신경숙)
소 계	75	12	87	

2010학년도까지 적용된 국정교과서의 경우 국어(상),(하) 교과서에 실린 현대소설⁶⁵⁾은 8편이며, 이중 여성 작가의 작품은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 단 한편으로 12.5%에 해당한다.

그러나 <표3>와 같이 검인정 교과서를 출판사별로 살펴보았을 때, 국어 교과서 (상),(하)에 수록된 현대소설의 작품 수는 87편으로 출판사별 평균 5편이다. 그러나 그 중 여성작가의 작품은 총 12편, 평균 0.7편으로 한 편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국정교과서에 비해 개정된 검인정교과서에서 여성작가 소설의 수록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출판사별 여성작가의 작품 수록 현황을 살펴보면 박완서 4편,

65) 국정교과서 국어(상),(하)에 수록된 현대소설 : 그 여자네 집(박완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봄봄(김유정), 장마(윤홍길), 삼대(염상섭), 광장(최인훈), 눈길(이청준), 천변풍경(박태원) 이상 8편.

공지영 2편, 신경숙 2편으로 12편의 작품 중 8편의 작품인 67%가 3명의 여성작가 작품으로 그 범위 역시 한정적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작가의 소설이 한 편도 수록되지 않은 것도 7종으로 16종 교과서 중 44%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점차 활발해지고, 각 분야에서 여성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소설의 대부분인 86%가 남성작가의 소설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은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국어 교과서의 현대소설 작품에 여성 작가가 이토록 부족한 이유로는 사회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한국 여성들은 그동안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하에서 정당한 교육의 기회를 얻기가 어려웠다. 서양 문물의 유입으로 여학교가 성립되기도 하였으나 당시 학교 교육의 목표가 가부장적 이상향의 여성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여성이 문학이나 소설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소설에 있어 월등히 느릴 수밖에 없었다.

여성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소설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상이란 소설 작품 내의 인물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소설의 이야기 전개는 작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작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특정 주제에 대한 가치관 등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현재 우리나라 문단에서 여성 작가들의 활동은 꾸준히 이어져 오정희, 박완서를 거쳐 공지영과 은희경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창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 소설에서 여성 작가의 작품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은 작품 수의 차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여성의 글쓰기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기존의 남성의 글쓰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여성 작가의 작품이 갖는 의미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⁶⁶⁾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적

질서 안에서 비평의 잣대가 여성의 글쓰기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채어낼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때문에 여성작가의 작품이 부족하더라도 제한된 상황 안에서나마 이루어져 온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

단순히 여성작가의 작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국어교과서의 편향적인 구성을 거론하기에 부족하다면 소설의 전개에 있어 작가의 시각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주인공의 남녀 비율을 살펴보겠다.

여성 인물이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교육의 총체인 교과서나 그 밖의 교수-학습 자료에서 희소하게 주변적 존재로 다루어지는 것은, 암암리에 여성이 우리사회에서 덜 중요한 존재라든가 주변인이라는 왜곡된 가치를, 또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여성의 공헌을 평가절하 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성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다.⁶⁷⁾

현재 2010년 개정된 검인정 국어교과서 16종에 수록된 현대소설 59편(출판사별 중복 수록 횟수 제외) 중 주인공이 여성인 작품의 목록을 거론하면 <표4>와 같다.

※ <표4> 국어 교과서에 수록 현대 소설 중 주인공이 여성인 작품 목록

작가	작품	주인공
박완서	겨울나들이	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나

66) 기존의 문학 전통에서는 남근(penis)과 펜(pen),사정(射精)과 언어의 방출을 연결시키면서 남성에게만 특권을 부여했고, 부재나 침묵, 불가시성(不可視性), 궁핍 등의 부정적 징표만을 여성에게 부여했다. 이처럼 남성 중심적 전통에 입각해서 여성작가를 차별하는 비평을 ‘남근비평(phalliccriticism)’이라고 한다.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29면.

67) 김재춘,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양성 평등 교육 실현 방안 연구 - 5개 교과 양성 평등 수업 지도 방안 개발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1999, 35면.

	먹었을까	
	나목	이경
채만식	탁류	정초봉
은희경	빈처	그녀
김유정	동백꽃	점순, 나(소년)
공지영	즐거운 나의 집	위녕
	봉순이 언니	봉순
황순원	소나기	소년, 소녀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어머니, 아저씨(사랑손님)
신경숙	외딴방	나
	엄마를 부탁해	나, 엄마
이광수	무정	이형식, 박영채, 김선형
박경리	토지	최서희
최명희	혼불	청암부인과 며느리, 손자며느리(허요원)
총 15편		

<표4>을 살펴보면, 주인공이 여성인 작품이 모두 15편으로 16종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총 58편의 현대소설 중 차지하는 비율이 25%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주인공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작품이더라도 작품별로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여성이 주체가 되는 경우는 훨씬 적다. 교과서 내에서 여성인물이 배제되지 않고 남성과 동일하게 등장하는가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여성이 등장인물로 다루어지면서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가는 보다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교과서의 남성 작가의 작품 속에서 여성은 대개 궁핍한 사회 현실의 희생자로 그려진다. 이는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대부분이 남성작가에 의해 쓰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여성들은 남성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수동적인 소비자의 위치에 머물

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내 여성이 중요한 내용에서는 빠진다거나 주변 인물 또는 보조적인 인물로 그려질 때는 출현 비율과는 관계없이 여성의 가치는 비하된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9) 지역, 성, 인종, 민족, 계층, 직업, 종교,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의 측면에서 편견을 낳을 수 있는 작품을 피하고, 타인의 삶과 다른 문화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넓힐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한다.⁶⁸⁾’라고 분명히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검인정 교과서의 문학작품 속에서 여성은 남성의 종속적 존재이며, 사회 현실의 희생자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을 못나고 열등하고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묘사하는 작품들이 학생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제시될 경우 학생들은 의식, 혹은 무의식적으로 남성은 강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며 여성은 무능하고 이차적인 존재라는 편견을 얻게 된다.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소설에 나타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기존 사회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재생산함으로써 여성의 주체적인 생각과 행동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하에서 남성에게 억압받는 여성상이 반복해서 제시될 경우 여학생들은 가부장제의 질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 자아 형성을 위한 주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또한 교과서 수록 작품에서 여성들은 남성에게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이미지가 반복되어 제시되면 이러한 교과서를 통해 교육을 받은 여학생들의 무의식에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여성상이 여성의 본질이라는 성불평등 의식이 자리 잡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작품 속 인물 묘사의 불일치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되어 결국 이중의 정체성을 형성해야만 한다.

68)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19면.

교육 내용 구성에서 여성인물의 출현비율이 낮다거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낮다는 것은 수적인 측면의 회소성의 문제, 그 이상의 성차별적 측면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육내용에 출현하는 여성이 적고, 또 여성이 출현한 경우에도 그저 주변 인물로 다루어지는 것은 여성의 역할이 주변적인 것이라는 성 편견을 심어줄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이는 주의 깊게 분석해 보아야 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스스로 삶의 문제에 뛰어들며 해결하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야말로 여성의 자아 형성을 위한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이자 여성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임이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여성이미지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사실은 여성 교육에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남성작가의 작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주장만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여성 작가의 활동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고전작품이 아닌 현대 소설의 경우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여성의 위치는 어디인가? 위대한 여성작가는 없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문단에서의 여성작가들이 얼마나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기존의 문학사에서 여성작가들의 작품에 대해 여성다울 때는 남성성의 결핍으로, 남성다울 때는 여성성의 왜곡⁶⁹⁾으로 평가절하 해왔다. 이것은 남성 중심적인 이중 잣대로 여성의 문학을 가부장적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으로 바라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 문학사의 남성 중심적인 비평 풍토가 국어교과서에서도 고

69) 김미현, 『여성문학을 넘어서』, 민음사, 2002, 117면.

스란히 반영되어왔다.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남성작가의 문학작품이 교과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은연중에 남성의 시각이 인간보편적인 시각으로 간주되었다.

교과서로 대표되는 교수-학습 자료가 양성 평등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평가절하 되었던 여성의 관점과 견해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에 편재되어 있는 성 고정 관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성차별적인 내용을 제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앞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 평등 관점에서 교과서 내용 구성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⁰⁾ 첫째, 교과서의 내용이나 삽화에 여성 인물을 남성 인물과 비슷한 비율로 비중 있게 등장시킨다. 교과서의 삽화나 내용에서 여성의 등장 빈도나 비중은 남녀 학생의 정체성 형성과 여성성에 대한 이해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에 편재해 있는 성에 관한 고정 관념을 배제하고, 비판하는 내용을 적극 반영한다. 성역할 고정 관념에 근거한 내용 구성은 학생들이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개인차, 인간 존재의 다면성과 복잡성,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셋째,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공정하게 소개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다양한 집단과 숨은 공로자로 인해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이런 다양한 집단의 일반 대중이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거나 언급한 부분은 찾기 힘들다. 예를 들면 여성의 참정권 획득과 관련한 투쟁이나 여성이 사회발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의 이슈나 문제에 대한 견해는 매우 다양한데 반해 선택적으로 어느 한 집단의 견해와 해석만을 제시한다면 학생들은 현실을 왜곡하게 되는 인식과 여러 가지 관점과 견해를 적절

70) 김재춘, 앞의 책, 57-62면 (참조).

히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교과서는 학생들이 역사적 사건이나 현재 상황에 대해 복잡성과 다양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교과서에 폭넓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사회가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들을 과감하게 반영해야 한다. 어느 사회든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부정적인 면들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밝고 긍정적인 측면만 담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발견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가사 일을 공동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으나 교과서에서 여성이 직업적 경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나 남성이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또 사회 현실에서 존재하는 직장생활에서의 성차별과 같은 기술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현실과 거리가 먼 내용으로 교과서가 구성된다면 학생들은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성차별적 편견이나 갈등의 문제들을 인식할 수 없게 된다. 교과서에서 현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사실적으로 다룬다면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게 되었을 때 직면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다.

다섯째, 여성에 관련한 내용을 교과서 주변적인 내용으로 다루기보다는 본문 속에 주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제시한다. 현재 교과서에서는 여성에 관련한 내용을 별로 다루지 않고 있지만 다룬다고 해도 교과서 내용에 대한 개정이나 정보를 추가한다는 목적에서 주변적인 내용 즉, 박스 기사나 부분처리, 분리된 장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성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본문과 분리하여 다루게 될 때 학생들은 여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 받을 수 있다. 즉, 여성이나 소수 집단의 경험과 공헌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있어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서는 우리 사회 발전에 여성이 기여해

은 점을 정당하게 소개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교과서에서 성차별을 반영하는 언어 표현을 자제하고 성 평등한 언어 표현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사실 일상생활이나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많은 용어나 문구에서 남성 중심적인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 ‘아들·딸’과 같이 성별의 순서가 고착되어 있거나 ‘집사람’, ‘바깥양반’, ‘안사돈’, ‘바깥사돈’처럼 성 고정적인 관념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가진 여성을 여교사, 여의사, 여교수와 같은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양성 평등한 교과서에서는 사회에서 일반화 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라고 해도 성 차별 성 여부를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남편이 가사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가사 일을 함께 하는 것’과 같이 양성 평등한 문장으로 대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양성 평등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방안이 얼마나 교과서에 반영되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양성 평등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양성 평등 지수 측정표를 제시하여 양성 평등 기준에 적합한 교과서만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 <표5> 교과서 내용의 양성 평등 지수 측정을 위한 체크리스트⁷¹⁾

번호	항 목	내 용	점 수
I	여성 인물 등장	1. 여성과 남성 인물이 균형 있게 등장하였는가? 2. 여성 인물이 비중 있는 인물로 등장하는가?	1 2 3 4 5
II	성 고정 관념	1. 여성을 가정 이외의 다양한 직업 활동을 하는 인물로 다루고 있는가? 2. 전통적으로 여성의 참여가 적었던 직업에의 참여	1 2 3 4 5 1 2 3 4 5

	탈피	를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는가? 3. 남성의 정서적 표현(웃고, 울고, 아파하고 등등)이 여성과 동등하게 다루어지는가? 4. 남성의 경우, 전통적으로 남성의 참여가 적었던 직업에의 참여를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는가?	1 2 3 4 5 1 2 3 4 5
III	여성의 관점 반영	1. 여성이 공헌하고 기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2. 여성의 관점과 견해가 포함되어 있는가?	1 2 3 4 5 1 2 3 4 5
IV	현실 사회 반영	1. 이혼가족이나 편친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유형이 묘사되고 있는가? 2. 현실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다양한 성차별성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는가?	1 2 3 4 5 1 2 3 4 5
V	중심 주제화 정도	1. 양성 평등·의식 함양과 관련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가? 2. 여권 운동이 다른 사회적 변화에 끼친 영향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가?	1 2 3 4 5 1 2 3 4 5
VI	언어적 편견	1. 관례화된 남성 중심적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이는가? 2. 성편견적 문구를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의도적으로 수정하고 있는가?	1 2 3 4 5 1 2 3 4 5

2. 채만식의 『탁류』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

페미니즘 문학 이론에서 작가의 성별 구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남성작가의 경우 성차별과 억압에 대하여 얼마나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가의 문제 제기, 그 가능성과 한계는 어떠한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⁷²⁾

71) 위의 책, 63면.

72) 박명순, 「채만식 소설의 페미니즘 연구」, 공주대 박사학위논문, 2006, 37면.

남성작가의 작품을 페미니즘 관점에서 연구하는 작업은 페미니즘 문학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메리 엘만(Mary Elman)과 케이트 밀레트(Kate Millett)로부터 비롯된 여성이미지 비평이다. 이 이론은 작가의 여성의식을 명료하게 밝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남성작가가 여성 인물을 작품화한 경우는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가부장적인 관점에서 소재(素材)적 차원으로 여성을 다룬 경우, 둘째, 가부장제 의식의 잔재는 남아 있으나 부단한 독서와 자기 체험의 변화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려는 통찰의 시선으로 여성 의식의 변모와 발전을 보이는 경우, 셋째, 진보적 세계관을 지닌 작가가 여성 문제와 상관없이 새로운 가치관을 작품화할 경우이다. 채만식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데 그의 내면의식에는 비록 가부장적 사고가 존재하지만 바람직한 가치관을 내면화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이 작품의 여성인물 형성화로 나타난다.

이리가레이 등에 의해 논의된 여성적 글쓰기 단계에서 여성의 언어는 권위적이던 남성의 언어와 대립적이며 결국 가부장제를 전복하는 계기로써의 분출력을 지닌다. 여성적 언어는 근본적으로 심리적 사건에 대한 자각과 그에 적합한 양식이 내적 독백이나 의식의 흐름에서 비롯한다. 이는 가부장적인 권위에 대한 두려움, 여성이 만들어낸 것의 부적절성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낸다.⁷³⁾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채만식의 작품에 나타난 언어적 특성은 여성언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작품에 나타난 서술자의 관점은 어떤 권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비롯된 확신이 느껴지지 않는 유보적이고 부정적인 면을 보인다. 이는 단순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내재

73) Josephine Donovan, 김열규 외(역), 『페미니스트 문체비평』, 문예출판사, 1988, 190면.

된 두려움과 불안감의 표출로 식민지 시대에 대한 압박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채만식의 여성적 글쓰기는 내용과 형식의 이중적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용 측면에서는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여성의 혼인, 이혼, 자유연애, 정체성 찾기, 사회참여 등의 문제에 대한 작품 형상화에서 여성 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수다⁷⁴⁾, 열린 결말⁷⁵⁾, 틈새 언어⁷⁶⁾, 여성 중심 서사⁷⁷⁾를 들 수 있다.

여성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채만식은 왕성한 작품 활동과 여러 문학양식 속에서 일관된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남성작가이다. 여성작가의 경우와 다르게 남성작가의 경우 동일한 피해자일 수 있으면서도 가해자의 시각을 고수하는 편협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작가의 작품에서 왜곡된 여성상과 남성 우월적인 묘사를 지적해 내는 것이 ‘여성으로서의 독자’에게 부여된 일차적인 과제인 것처럼 생각되어 왔다.

1930년대는 극도로 억압된 식민지 통치로 민중들의 생활은 도탄에 빠지고 세계적인 공황과 중일전쟁으로 인해 국내외 정세는 어떠한 전망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으로 1930년대 후반기의 한국문학이 문학

74) 대표적인 여성 폄하적 속성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어져 왔으나 수다는 여성의 특징적 화법 가운데 하나이며 억압된 정서를 표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여성적 말하기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페미니즘 용어가 될 수 있다.

75) 채만식의 작품에서 열린 결말을 보여주는 예를 『탁류(濁流)』에서 들 수 있다. 『탁류』의 결말 내용이 소제목 ‘서곡’에 적절한 새로운 출발 전야를 상징함으로써 다양한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 열린 결말은 새로운 출발과 예고를 통해 마무리 자체를 유보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으로서의 담론을 제시하는데, 이는 여성적 글쓰기와 가장 밀접한 관련 양상을 보인다.

76) 언어와 언어의 틈새를 이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것으로 기존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전복하는 논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채만식의 문학에서는 풍자와 패러디가 틈새 언어와 통한다.

77) 여성 인물은 작가의 여성의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과 시대와의 관련성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문학사적 자료가 된다.⁷⁸⁾ 이러한 시각을 페미니즘 문학에 적용할 때 음지 문학이던 페미니즘 문학이 다양한 양상으로 발화하였던 시기이다. 근대와 전근대의 충돌로 갈등이 심화되었던 1930년대의 갈등과 모순이 구체화된 실체로 드러나는 것이 채만식이 창작의 모티프로 주목한 여성 모티프였다. 채만식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구여성이 겪는 억압의 상황을 예리하게 포착하거나 교육의 기회나 사회진출이 서서히 진행되어 전 시대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남성 작가의 여성 모티프는 그 자체만으로 페미니즘적 분위기 확산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채만식의 작품에서 작가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여성 주인공의 모습이 남성 중심 세계의 가치관 구현에 머무는 한계를 지닌다 하여도 그 자체만으로도 페미니즘의 가능성으로서의 의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탁류』는 『太平天下』와 함께 채만식의 작품에 있어서 가장 으뜸 되는 성과라는 것에 많은 연구에서 일치를 보인다. 이 중 『탁류』를 평가하는 관점은 많은 연구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동안 『탁류』에 대한 페미니즘 연구가 초봉과 계봉에 대한 인물 중심으로 수준 높은 질적 심화가 이루어져 왔다. 임화는 이 작품을 세태소설의 범주에 넣어 한 여인의 운명적 인생 유전(流轉)이 당대의 타락한 세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 김남천은 『탁류』에는 세태 속에서 ‘모랄’을 살려가려는 의지가 있어 결코 통속소설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탁류』를 평가하는 또 다른 관점은 리얼리즘 소설로서의 성과에 대한 관심이다. 『탁류』가 ‘구세대의 봉건적인 여성관과 여성을 둘러싼 사회의 온갖 비인간적인, 마치 탁류와 같은 사회상을 파헤친 일종의 사회개혁 소설’ 또는 ‘여성의 새로운 윤리관을

78) 조동길, 「1930년대 후반기 한국 장편소설 연구 - 농민소설과 세태소설의 배경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0, 168면.

주인공 계봉이로 하여금 독자에게 전달 계몽하려는 의도적인 작품'⁷⁹⁾ 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시몬느 드 보바르는 『제2의 性』을 통해 기존의 자유주의 여성 해방론에서 간과한 사회 구조의 문제와 사회주의의 여성 해방 이론에서 경시한 여성 주체의 문제를 동시에 중시한다. 시몬느 드 보바르의 이러한 실존주의 페미니즘 이론인 여성 실존과 정체성의 문제를 채만식 문학에 적용하여 그의 문학에 담긴 여성의 실존적 자각을 고찰하였다. 특히 그의 작품 중에서도 『탁류』의 초봉과 계봉을 중심으로 채만식 소설에 나타난 자유주의 페미니즘 양상을 고찰하고 그의 여성적 글쓰기가 식민지 상황의 시대 문제를 표현하고 더불어 여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고자 한다.

채만식은 1927년 「세 길로」를 문단에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1950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중장편 20, 단편 75, 희곡 30, 수필 143, 평론 79, 잡문 40, 가요1, 시나리오 1, 방송 극본 1편⁸⁰⁾의 작품을 남겼다.

작가의 생애에 대한 참조는 작품 해석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예비 작업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비평이란 본질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전기적 과정(biographical process)'이며 더구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은 실제 생활의 체험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⁸¹⁾

채만식의 생애를 여성 의식 형성과정과 연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채만식은 1902년 전북 옥구군 임피면에서 부친 채규섭(蔡奎燮)의 5남 1녀 중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나이 19세 때 갑작스러운 귀가명령에 의해 이행된 결혼은 그에게 개인적인 부채감과 함께 여성 문제라는 숙명적인

79) 성낙희, 「풍자문학론-채만식론을 겸하여」, 『청파문학』 9호, 숙명여대, 1971, 95-96면 (참조)

80) 김홍기, 「채만식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0, 7면.

81) 송지현, 앞의 책, 150면.

화두를 짚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실제로 그의 작품에는 조흔한 구식 아내와 연모하는 신여성의 대립과 그로 인한 고통, 죄의식과 갈등의 양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는 여성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관찰자의 입장을 가지고 처녀작 「과도기」를 통해 봉건적인 모랄과 질곡을 포착하고 구식 여성의 삶에 대해 다뤘다. 그러나 「과도기」는 봉건적 제도에 의해 희생된 여성과 남성의 모습을 포착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묘사하였을 뿐이다는 한계를 가진다.

1929년 개벽사 기자로 입사하였다가 1933년 잡지사의 몰락으로 실직하고 같은 해 『人形の 집을 나와서』의 연재로 작가의 자리를 확보한다. 그의 최초의 장편 『人形の 집을 나와서』는 자유주의적 여성해방운동의 어려움과 한계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그는 진정한 여성해방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노라’라는 한 여성의 행적을 통해 형상화하려 했다. 결국 노라의 방황은 건전한 노동의 길을 택함으로써 마감되게 되고 자신의 처지를 비참하게 인식하기보다는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한 싸움을 기꺼이 이행하겠다는 결의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과 정착의 과정이 설득력 있게 전개되지 못해 여성해방의 실현이 어렵고 왜곡되기 쉬운 일상이라는 것을 제시하기에 미흡하고 무리가 있다. 단지 베벨(A.Bebel)의 「부인론」에 의거하여 부인해방운동의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작가의 한 견해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⁸²⁾ 하지만 『人形の 집을 나와서』는 장기간 신문소설로 연재되며 여성문제를 다루어 여성해방운동을 世人들의 관심사로 부각시킨 업적을 남겼다.

개벽사에 근무하면서 그의 사회주의 사상이 더욱 깊어 있어지고 무게감을 지니게 되었는데 이 무렵 여성 해방에 대한 관심이 이론적으로 풍부하

82) 위의 책, 155면.

게 논의되었던 격동기와 맞물리면서 그의 사상에 여성 주권에 대한 무게를 싣게 되는 계기가 된다.⁸³⁾ 또한 그는 『여성』 지에 근무하면서 여성 해방 이론의 분위기 등을 접하면서 여성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조혼의 충격과 갈등은 지속적인 여성문제에 대한 천착으로 이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조혼의 체험과 중혼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구여성에 대한 거부와 연민에서 신여성에 대한 동경과 비판 및 거부는 작가의 근대의식에 대한 양면성을 보여준다.

「과도기」에서의 혼란상 제시, 『人形의 집을 나와서』에서의 여성해방 운동의 부정적 가능성 나열과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무리한 수용 등을 거쳐, 채만식의 여성주의가 리얼리즘과 만나게 된 작품은 바로 『탁류(濁流)』이다.

가. 가부장제 사회의 희생양 강요와 모순 폭로

인간의 감정이 이성보다 존중 받았던 시대는 낭만주의 시대이다. 그러나 1920-30년대는 남녀 관계의 감성을 표출하기 위한 시대적 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한 시기였다. 진정한 자유연애 사상이 남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질 수 없었던 구시대의 연장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식민지 시대라는 사회적 모순 속에서 남성에게 다소 자유로웠던 자유연애의 분위기가 갇힐 수밖에 없었던 억압의 시대였다. 인간의 감정을 발산할 수 없는 조선 시대의 상황이 답습된 채 채만식의 작품에는 자유연애와 식민지 상황 그리고 과도기 시대의 모순이 복합적으로 겹쳐져서 형상화된다. 이러한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주요 인물이 『탁류』의 초봉과 계봉이다. 먼저 작품 속에서 초

83) 박명순, 「채만식 소설의 페미니즘 연구」, 공주대 박사학위논문, 2006, 24면.

봉이 파멸되는 과정의 서사를 고찰한 후 작가의 가치 지향적 인물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식민지 여성 교육 정책은 한국인을 우민화하여 일본에 동화시키겠다는 일종의 노예화 교육론이었다. 그러므로 여성에게 지리·역사·산술·화학·제조 등 고등교육을 시키기 전에 먼저 정숙한 고사와 유문을 가행으로 더욱 교도하여 순종적 교육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⁸⁴⁾

초봉이 받은 근대 교육은 식민지 여성들에게 실시되는 순종적 교육이었으며,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효와 희생을 강조하는 전통적 유교 사회의 교육이었다. 이 시기 교육은 가부장제를 굳건하게 하고 거기에 희생당하는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때문에 초봉은 본인의 행복과 욕망을 집안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를 거부하지 못한 채 비주체적으로 희생양이 되는 인물이다. 그녀의 희생이 성스럽고 위대하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1930년대 가정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해 작가는 초봉을 시대의식에 뒤떨어진 구태의연함으로 풍자함으로써 왜곡된 여성성에 대한 비판 시각을 제시한다.

그러나 명님이네의 일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따지고 보면 더 야박하다고 할 수 있는) 이번의 초봉이의 혼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반감 같은 것은 조금도 나지를 않았다. 았았다기보다도 실상은, 계봉이가 짐승의 새끼를 팔아먹는다는 그 비유를 하는 대목에서는, 승재는 벌써 정신을 놓고 다른 생각을 아무 것도 하게 될 겨를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종시 말고 없고 눈을 치며 허공을 보는 승재의 얼굴은 차차로 황홀해간다. 그는

84) 박용옥, 『한국여성 항일운동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16면.

정선영, 「채만식 소설의 여성주의」,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1999, 21면 재인용.

시방 눈 앞에 자비스런 초봉이가 한가운데 천사의 차림으로 우뚝이 나타나 있고, 그 좌우와 등 뒤로는 그의 가권들의 가엾은 얼굴들이 초봉이의 후광을 받아 겨우 희미하게 안식을 얻고 있는 그런 성화(聖畵)의 한폭이 보이던 것이다.

“장한 노릇이로군!”

더욱 감격하다 못해 필경 눈이 싸아하고 눈물이 배는 것을, 그러거나 말거나 앉아서 중얼거리듯 탄식을 하던 것이다.⁸⁵⁾

채만식은 초봉을 통해 가부장제 시대에서 희생되는 여성에 대한 감격과 연민의 시선을 외면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가 이상적으로 제시하는 인물은 부친을 비판하고 연애와 혼인을 별개로 생각하는 자유분방형의 계봉이다. 그는 계봉을 부각시키기 위해 초봉과 대립적으로 설정하고, 초봉을 파멸시킴으로써 가부장 사회를 고발하고 초봉의 수동적인 삶을 간접적으로 비판한다. 초봉의 희생양 이미지는 여성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결국 억압과 구속의 고통 속에서 자기 파멸에 이르는데 그 원인을 세 가지의 시각에서 보여준다. ㉠ 반강제 혼인 ㉡ 내면화된 왜곡된 여성성 ㉢ 딸 송희에 대한 집착으로 표현되는 모성애 등이다.

두 내외는 태수의 위인이랄지, 또 혼인하기에 꺼림칙한 점이랄지는 짐짓 말내기를 꺼려했고, 혹시 말이 낭터라도 서로 그것을 싸고돌고 안고 돌아가고 하느라고 애를 썼다. 마치 자리 잡은 부스럼이나 동티나는 터주대감 건드리기를 무서워하듯.

그들은 진실로 이러하다. 그들은 딸자식 하나를 희생을 시켜서 나머지 권술이 목구멍을 도모하겠다는 계책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행하고 할 담보는 없다. 가령 돈 있는 사람을 물색해내서 첩으로 준다든지, 심하면 기생으로 내얹히거나, 청루에 가탁 팔거나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비록 낡은 것이나마 교양이라는 것

85) 채만식, 『탁류』, 문학사상사, 2010, 212면.

이 있어 타성적으로 그놈한테 압제를 받기 때문이다.

해서, 정 주사네는 시방 태수와 이 혼인을 함으로써 집안이 셈평을 펴게 된 이 끔찍한 행운을 당하여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혼인이 장차에 딸자식을 불행하게 하거나 앓을 것인가 하는 의구를 일으켜 가지고 그 의구가 완전히 풀리기까지 두루 천착을 해 보기를 짐작 그들은 피하려 든다. ‘사실’이 무섭고 무서운 소치는 너무도 ‘사실’이 뚜렷하고 보면 차마 혼인을 못할 것임으로써다.⁸⁶⁾

작가는 초봉을 통해 부모에 의한 반강제적인 매매혼이 여성의 예속을 어떻게 강화하여 불행하게 하는지 보여준다. 위조 범죄자,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성병환자, 홀어머니를 외면하고 자포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인물인 고태수는 근대의 불순한 욕망이 집약된 최악의 인물이다. 아버지 정주사와 고태수가 만든 혼인과 박제호, 장형보로 이어지는 첩살림은 초봉의 불행과 파멸의 주원인이다. 작가는 비극적인 매매혼의 실상을 보여주며 동시에 이를 비판하며 여성의 주체성 부족과 무의지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여성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는 경고로 채만식은 그 책임은 초봉에게 있음을 제시한다. ⁸⁷⁾

다음으로 왜곡되어 내면화된 여성성에 대한 요인 분석이다. 초봉의 파멸은 자신을 억압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출하지 못한 수동적 성격 요인 때문이기도 하다. 초봉은 청초하고 연약하면서도 사근사근하여 사람을 끄는 매력적인 여성이지만 가난을 구제하려는 희생정신이 강하여 가정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책임지고 감수하는 의지력을 보이면서도 다른 일에는 자기 운명을 체념해 버리고 마는 의지력 약한 인물이다. 순종과 자기희생에 길들여진 가부장제 사회의 표본으로 제시되고 있는 초봉은 여성성의 순종의 미에 포장되어 인고와 절제를 강요당한다.

86) 위의 책, 157-158면.

87) 박명순, 「채만식 소설의 페미니즘 연구」, 공주대 박사학위논문, 2006, 56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초봉이는 비단 오늘 일뿐 아니라, 크고 작은 일이고 간에 누구한테든지 저 하고 싶은 대로 고집을 세운다든가, 속에 있는 말을 조백이게 해대지를 못한다. 속이야 다 우렁잇속같이 있으면서 말을 하자고 들면, 가령 그것이 억울하다든가 분한 경우라든가 가운이 겉으로 시원시원하게 내뽐기지를 못하고 속으로만 수구러들어, 목이 잠기고 눈물이 앞을 서곤 한다.⁸⁸⁾

누구에게든지 자신을 말을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고집을 세우지 않는 것은 주체성을 갖지 못하는 초봉의 성격을 말한다. 이는 어머니 유씨의 의도성과 연관성을 가지는데 가족에 대한 희생을 목격하며 자란 초봉에게 어머니의 명령은 절대적이며 그에 대한 순응이 타인에 대한 복종으로 이어진다.⁸⁹⁾ 초봉은 분노와 거부의 의사를 눈물로 표출할 뿐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이후 초봉이 겪는 모든 불행은 그러한 말하지 못함, 행동하고 분노하지 못함과 긴밀한 관련을 가진다.

눈물이 난다는 유씨는 그냥 맹충맹충하고, 초봉이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이 좌르르 쏟아진다. 그것은 부친을 가엾어 하는 눈물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노상 그것만도 아니다. 그는 모친에게서 결혼을 하고 나면 태수가 장사 밑천으로 돈을 몇 천 원 대어주어 부친이 장사 같은 것을 하게 한다는 그 말을 듣고는 다시는 더 여부없이 태수한테로 뜻이 기울어져 버렸다.⁹⁰⁾

88) 채만식, 앞의 책, 42면.

89) 이주형, 「타류에 나타난 여성 폭력과 히스테리의 의미」, 『채만식 연구』, 태학사, 2010, 192면.

90) 채만식, 앞의 책, 176면.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고태수와 혼인하고, 박제호를 수동적으로 받아 들여 첩살림을 하다가 장형보와 생활 방편으로 살림을 수락하는 것은 지나치게 상황 의존적이고 자기희생적이다. 이러한 초봉은 자아 성취를 포기한 채 장형보와 동거하면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늘상 불안과 공포에 떠는데 이는 딸 송희를 위한 모성애적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방 초봉이의 새로운 이 운명만 하더라도 그 복선(伏線)은 차라리 그가 어머니로부터 송희를 사랑하는 죄…… 하기야 매니어(狂)에 가깝도록 편벽된 구석이 없진 않으나…… 아무튼 어머니 된 죄, 그 속으로부터 년출은 뺀어나온 거이다.

하나, 그놈을 다시 추어보면 년출은 애정없이 사랑할 수 없다는 서글픈 인정 속에 묻혀 있는 복선의 연맥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시 그 끝은, 팔자를 한번 그릇뜨린 젊은 여인이란, 매춘의 구렁으로 굴러들기 아니면 소첩 애첩의 이름 밑에 아무 때고 버림을 받아야 할 말이 없는 위험 지대에다가 몸을 퍼뜨리고 성적 직업(性的職業)에나 종사하도록 연약하기만 하지, 여자이기보다 먼저 인간이라는 각오와, 다구지게 두 발로 대지를 밟고 일어서서 버틸 능(能)이 없이 태어났다는 죄, 그 죄로 복선의 끝은 면면히 뺀어 들어가서 있는 것이다.

만일 이 복선의 년출은 마지막, 땅에 뿌리박은 곳까지 추어 들어가서 힘껏 뽑아낸다면 거기엔 두 덩이의 굵은 지하경(地下莖)이 살쥔 고구마와 디롱디롱 달려 올라오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한 덩이는 세상 풍도(風度)요, 다른 한 덩이는 인간의 식욕(食慾)이다.

기구한 생애가 시초를 잡고 뺀쳐나오는 운명의 요술주머니란 바로 이것인 것이다.⁹¹⁾

초봉과 장형보의 관계를 연결하고 있는 것은 딸 송희에 대한 초봉의 원초적 모성애라고 할 수 있다. 채만식은 초봉의 운명은 모성애에서 일차적

91) 위의 책, 374-375면.

으로 빚어진다. 이는 또한 도덕과 제도의 문제에서 뻗어 나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여성의 정조를 구속하는 세상의 풍도와 그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인간의 식욕은 모성애를 통해 초봉의 운명을 구속한다.⁹²⁾ 근대사회에서 한번 팔자를 그릇한 여성은 매춘이나 첩의 이름으로 제도 밖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여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 풍도에서 부도덕한 위치에 자리할 수밖에 없음을 작품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모성과 정절을 강조했던 근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초봉이는 비로소 형보가 죽은 줄로 알았다. 죽은 줄로 알고 발길질을 멈추고는 허얼헐 가쁜 숨을 쉬면서, 발밑에 빠드리진 형보의 시신을 들여다본다.

이 초봉이의 형용은 거기 굴러져 있는 송장 그것보다도 더 숨겨진 꼴이다.

긴 머리채가 앞될 흐트러져 얼굴에도 그득 드리웠다. 얼굴에 드리운 머리칼 사이로 시뻘겋게 충혈된 눈이 무섭게 번득인다. 깨문 입술에서 흐르는 피가 검붉다. 매무새가 흘러내려 흘러내려 흰 허리통이 정그럽게 드러났다. 가빠 쉬는 숨결마다, 드러난 그 허리통이 쥐노는 고깃덩이 같이 들먹거린다.

초봉이는 시방 완전히 통제를 잃어버린 ‘생리’다.⁹³⁾

장형보의 성욕에 시달리며 욕신이 병들어 가고 결정적으로 송희를 다루는 장형보의 무자비한 태도에 흥분한 초봉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장형보를 살해하는 극단의 비정상적 종말을 맞이한다. 이때 초봉의 모습은 ‘송장 그것보다도 더 흥한’ 꼴로 보여 진다. 박명순⁹⁴⁾은 결국 이러한 서사를 통해 채만식은 초봉의 자기희생은 본인과 상대방 모두를 파멸로 결말 맺게 하는 모순성을 지닌 위험한 욕망임을 작가는 경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92) 이주형, 앞의 책, 195면.

93) 채만식, 앞의 책, 521-522면.

94) 박명순, 앞의 논문.

“……자현을 하른 징역을 살라구? 사형이라든 차라리 좋지만, 징역을 살다니……인전 하다 못해서 징역까지 살아? 그 몹쓸 격난을 다아 겪구두 나쁜 고생이 있어서 징역까지 살아? ……못 하겠다! 난 기왕 죽자구 하던 노릇이니 죽구 말겠다! 죽구 말지 징역이라니! 내가 무얼 잘못했길래? 응 내가 무얼 잘못했어? 장형보 그까짓 파리 목숨 하나만두 못한 생명. 파리 목숨이라든 남한테 해나 없지. 천하에 몹쓸 악당. 그놈을 죽였다구 그게, 그게 죄란 말이나? 어째서 그게 죄냐? 미친 개는 때려죽이면 잘했다구 추앙하지? 미친 개보담두 더한 길 죽였는데 어째서 죄란 말이나? ……난 억울해서 징역 못 살겠다!……왜, 내가 징역을 사니? 인전두 다리 쭈욱 뻗구서 편안히 죽을 것을, 왜 일부러 고생을 사서 하니? 응? 응?”⁹⁵⁾

그러나 이주형⁹⁶⁾은 초봉의 광기, 히스테리적 폭력의 능동적 의미를 설명한다. 초봉은 모성애를 방해하고, 자신을 강간하며 괴롭힌 악당 장형보를 죽였을 뿐이므로 죄가 없다고 항변한다. 이러한 초봉의 논리는 여성 피해자의 정서와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과 비판 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작가는 폭력성, 살인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방법으로 희생되고 억압 받았던 여성의 삶을 구해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탁류』의 초봉을 통해서 근대 사회에서 여성이 전락하는 운명의 원인인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부도덕성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작품 속에서 나오는 초봉의 욕설이나 폭력성, 살인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광기는 타인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였고 ‘지극히 슬프면서도 웃을 듯 빛’나는 얼굴은 그녀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친정 집안의 생활비와 딸의 장래를 위하여 자포자기 상태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던 초봉은 살인이라는 극단의 방법으로 남성의 예측에서 벗어

95) 채만식, 앞의 책, 534-535면.

96) 이주형, 앞의 책.

나지만 법에 의해 감옥에 구속되는 필연적 절차를 밟는다. 가부장제 남성의 시각에서 중시되었던 순종적 여성의 전형을 지닌 청순가련형의 초봉을 파멸할 수밖에 없도록 형상화하고, 그 반대로 말괄량이형인 계봉이 발전할 수밖에 없도록 형상화하여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 이는 남성작가 채만식이 전통적 여성의식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난 페미니즘 의식과 심화된 세계관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초봉은 박제호가 떠나면서 어쩔 수 없는 자포자기 심정에서 딸 송희와 가족의 생활비를 빼낼 목적으로 장형보와 혼인을 수락한다. 이러한 전개는 초봉의 자각은 충동적이며 모성애의 발동으로 이루어지지만 남성의 예측에 대한 저항이며 순수한 연애 대상이던 남승재에 대한 애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박제호는 고태수와 혼인한 이후의 초봉을 ‘헌 계집’, ‘임자 없는 계집’으로 치부하면서 비인격적으로 대한다. 박제호가 초봉을 한 송이 꽃을 대하듯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위안을 대상으로 보다가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꾼 것은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정조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이미 헌 계집’

‘그리고 임자 없는 계집’

이러고 보니, 미혼 처녀에 대한 중년 남자다운 조심성과 압박으로부터 단박 해방이 될 것은 물론이다.

시집 잘못 갔다가 핫김에 서울로 바람잡일 나선 계집, 그러니 장차 어느 놈의 밭이 될지 모르는 계집, 그러니까 아무라도 먼저 채치있게 주워 갖는 놈이 임자다. 옛날로 말하면 공문서(公文書)짜리 땅 같은 것이다.⁹⁷⁾

가부장제 혈통의 계승으로 정조 개념 자체가 남성과는 상관없이 여성에

97) 채만식, 앞의 책, 292면.

계만 중시된다. 결국 부정적 인물로 제시되는 제호를 통해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정조 이데올로기에 대한 허상이 비판된다. 또한 여자란 것은 정조가 생명과 같이 소중하고 그러니까 한 번 정조를 더럽히기 시작하면 그 여자는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초봉의 정조 관념은 초봉의 비극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매개로도 작용하기도 한다.

채만식 소설에 나오는 가부장 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고발의 연결고리는 직접적이지 않다. 그러나 그는 페미니즘 관점에서 의식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인물로 ‘희생당하는 여성 인물’과 ‘팜프과탈형 여성 인물’ 그리고 ‘일본인 여성 인물⁹⁸⁾’로 구분하였다. 희생형 여성 인물과 팜프과탈형 여성 인물은 지향점이나 의식을 지니고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자신의 파멸을 통하여 남성위주 가부장 사회의 모순을 보여준다. 일본인 여성 인물은 특히 남성이 지니고 있는 혼인과 연애에 대한 이중성을 폭로하기 위해 등장한다.

『타류』에서 팜프과탈형 여성 인물은 한참봉 아내 김씨가 있다. 그녀는 쾌락적 욕망을 억제하지 못한 채 본능에 충실한 여성 인물이다. 그녀는 고태수와 더 자연스럽게 불륜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초봉과의 혼인을 주선하는 일종의 팜프과탈형 여성이다. 빈틈없는 살림능력과 경제수완이 좋은 그녀는 활달하며 적극적이지만 가부장제 사회에서 대를 잇게 할 아이가 없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다. 이 때문에 한참봉은 대를 이을 아들을 낳기 위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두 집 살림을 한다.

작품 속에서 김씨는 자유연애가 추구하는 낭만성과도 철저하게 위배되는 인물로 1930년대의 자유연애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 심지어는 불륜으로까지 축소되고 말았음을 잘 보여주는 인물⁹⁹⁾로 설정된다.

98) 본고에서는 『타류』를 중심으로 채만식 작품의 페미니즘 양상을 다루고 있으므로 ‘일본인 여성 인물’에 대한 논의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연구 가능성만 제시한다.

99)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101면.

김씨를 통해 독자는 여성 주도적 섹슈얼리티, 혼외 성 욕망 등의 담론에 참여하고, 내포작가는 여성독자의 내면에 있는 욕망을 일깨워 동시에 그 욕망의 불순함을 깨닫도록 유도한다.

김씨는 고개를 앞으로 내밀어 태수의 빙그레니 웃고 있는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아기 어르듯 한다.

“인전 장가를 갔으니까 어른인데, 그래두 이랬냐 저랬냐 해?”

“아이고 요것아!”

김씨는 손가락으로 태수의 볼때기를 잡아 쌀쌀 흔들다가 그대로 끌어다가는 ○○○○.

기왕이니 한바탕 꺾 물어 떼고 싶은 것을 차마 아직 참던 것이다.

“……장갈 들더니 재롱 늘었구나!”

“헤헤.”

“얼굴이 많이 상했다가? 쭈은 것들 장갈 디려주문 이래서 걱정이야!……그렇지만 너무 그리지 마라, 몸에 해루니라.”

“보약이나 좀 지어 보내 주덜랑 앓구서!”

“오냐, 날새 지어 보내 주마. 그렇지만 좀 조심해야 한다!…… 그애가 온 그렇게 두 이쁘더냐?”

“응.”

“하하하! 고것이야! …… 그렇지만 너 오늘 저녁은 내 것이다? 약속 알겠지? 한 달에 두 번은 내한테 오기루 한 거.”

“응, 그렇지만 열두 시까지우?”¹⁰⁰⁾

자유연애와 일부일처는 상호 모순적이다. 채만식은 김씨를 통해 자유연애와 일부일처가 지닌 모순점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 여성의 잠재

100) 채만식, 앞의 책, 253면.

된 위력이 지닌 가부장 사회의 파멸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페미니즘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외도라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탈이다. 그것은 여성의 성이 남성의 성욕의 대상이거나 가부장제를 유지하기 위한 생식의 수단일 때만 용납되기 때문이다.¹⁰¹⁾ 이러한 사실은 남성 주도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남성을 억압해야 한다는 보복논리와 여성이 남성을 억압하는 것은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것과 똑같이 옳바르지 않다는 여성/남성의 이분법적 이항대립을 넘어서야 한다는 담론을 제기한다.

채만식은 표면적으로는 남성적 가부장제 유지의 입장에 서 있는 듯하지만, 주체의 왜곡된 이미지를 통해 부정적인 현실을 응징하고 조롱한다.

나. 대안적 여성 제시

채만식 작품의 여성인물 대부분은 남성 욕망의 소유에 저항, 거부하는 인물이다. 『탁류』에 나타나는 여성 인물 초봉, 계봉뿐만 아니라 유씨, 기생 행화 등도 남성의 욕망에 억압당하다가 소극적으로나마 저항의 행위를 보이면서 남성에게서 독립하는 생활력을 보이면서 가부장 사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여성 주체의 다양한 양상을 드러낸다. 이는 채만식이 식민지 시대의 주요 모순을 복합적으로 인식한 현실 대응 양상의 한 측면으로서 페미니즘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¹⁰²⁾

특히나 초봉과 계봉의 뚜렷한 대비를 이루는데 계봉은 독신 여성으로서 채만식이 창조한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채만식의 작품 중에서도 독보

101) 이태숙, 「여성성의 근면적 경험 양상 - 1920, 30년대 문학을 중심으로 -」,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0, 46면.

102) 박명순, 앞의 논문, 79면.

적인 페미니즘 여성인물이다. 비록 다른 여성 인물과 발전적인 관련성이 적다는 면에서 일정부분 한계를 가지지만 계봉은 독신주의자로서 남승재와의 자유연애에 적극성을 보이는 신여성에 가까운 면모를 보인다.

계봉은 자유연애의 실천자로 주체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을 가지며, 가부장제 관점에서 중시하는 청순가련형을 거부하며 건강하고 씩씩한 외모와 백화점 판매원 일을 선택하여 독립심을 추구하는 실천적 삶의 가치관을 가진다. 이러한 계봉을 통해 채만식은 남성 중심 사회에 도전하는 이상적 인물을 성공적으로 형상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계봉의 ‘연애와 결혼은 별개’라는 입장은 기존의 이상적 여성상의 허상을 극복하는 혁명적 차이를 보여준다. 초봉이 수줍은 마음만 향하고 있었던 승재에게 인간적으로 끌린 계봉이 주도적으로 승재를 만나는 과정에서 승재 역시 계봉에게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되면서 이들의 감정이 연애 감정으로 발전한다. 특히 이들의 연애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된 결정적 요인은 계봉의 단호한 결심과 정열적인 성격이다.

승재는 다시는 꿈쩍도 못 하고 슬며시 밖으로 나간다.

거리로 걸어가면서, 승재는 계봉이가 소갈찌를 포르르 내면서, 남의 속도 모르고 그런다고 쏘아붙이던 말을 두루 생각을 해본다.

결코 까부느라고 아무렇게나 한 말이 아니요. 영감같이 속이 엉뚱한 소리던 것이다.

철없이 함부로 굴로 응석을 부리고 하는 계봉이를 동기의 친누이 동생인 양 승재는 단순하게, 그리고 마음놓고 사랑했고, 그것을 그대로 길이길이 가꾸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방 보고 나온 계봉이로 해서 한낱 전설같이 아득한 것이 되고 말았다.

누이동생을 내자고 하니까 말끄러미 올려다보던 그 눈, 남의 속도 모르고서 그

런다고 암상을 떨던 그 눈, 본시 타고난 것이라, 한껏 이지적이기는 하면서도 가릴 수 없는 정열을 흠뻑 머금어 사뭇 위태위태해 보이던 그 눈을 생각하면 승재는 다시는 계봉이와 똑바로 마주 보지를 못할 듯싶게 그 눈이 무서웠다.¹⁰³⁾

그러하지, 지금 승재가 절박하게, 그리고 리얼하게 마음이 쏠리긴 차라리 계봉이한테다.

계봉이는 드디어 승재를 사로잡고 말았다. 승재도 제 자신이 그렇게 된 줄을 몰랐다가, 작년 가을 계봉이가 서울로 뚝 떠난 뒤에야 제 몸뚱이가 통째로 없어진 것같이 허전한 것을 느끼고서 비로소 그것이 계봉이로 인한 탓인 줄을 알았었다. 그리하여 시방 승재를 끌어올려 가는 것도 사실은 실비 병원의 경영보다 계봉이의 ‘머리터럭한 오라기’의 인력이 크던 것이었다.¹⁰⁴⁾

또한 계봉은 외모에서부터 기존의 가부장적 남성 시각에 대립적으로 맞선다. 계봉의 외모는 초봉과 반대로 자유분방함을 표상하며 이것은 여성 주체의 관점을 대변한다. 또한 여성다운 이미지를 거부하며 선머슴아 같은 외모와 언행으로 뚜렷한 개성을 보이며 주체적인 인생을 개척할 새 시대의 여성상을 보여준다.

계봉이는 몸집이고 얼굴이고 늘품이 있다. 아무 데고 살이 있어서 북실북실하니 탐스럽다. 코가 벌심한 것은 사람이 좋아 보이나, 처진 볼때기에는 심술이 들었다. 눈과 이마도 뚜렷하니 어둡지가 않다.

그러한 중에도 제일 좋은 것은 그의 입이다.

마음을 탁 놓고 하하 웃을 때면, 시원스럽게 떡 벌린 입으로 그리 잘지 않은 앞니가 하얗게 드러나기까지 하여 보는 사람도 속이 후련하다.

초봉이의 웃는 입은 스러질 듯이 미묘하게 아담스럽지만, 계봉이의 웃음은 훤히

103) 채만식, 앞의 책, 207면.

104) 위의 책, 417면.

니 터져나간 바다와 같이 개방적이에요, 남성적이다.¹⁰⁵⁾

채만식은 초봉을 연약하고 여성적인 미모의 전형으로 그렸다면 계봉은 고전적인 미모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신여성의 미모를 갖춘 것으로 묘사한다. 계봉의 외양묘사에서 ‘어둡지가 않다’, ‘제일 좋은 것은’, ‘후련하다’, ‘개방적’, ‘남성적’ 등의 긍정적인 수사를 동원함으로써 외모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¹⁰⁶⁾ 이는 작품 속에서 계봉의 태도나 행동을 긍정적으로 서술하여 대안적 여성으로서의 계봉을 나타내고자 한 의도적 서술이라 할 수 있다.

계봉이의 뒤통수에서는 뭉뚱하게 자른 ‘뽕’ 단발이, 몸을 흔드는 대로 까불까불한다. 정주사는 이 까부는 단발과 깡충한 치마 밑으로 통통한 맨다리가 드러나 보이는 것이 언제고 눈에 뜨일 때마다 마땅치가 못해서 상을 찌푸린다.¹⁰⁷⁾

‘까불까불하는 몸’등 아버지 정주사에 맞서는 계봉의 외모 제시는 가부장적 시각에 대립적으로 맞서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다소곳하지 않다는 점에서 가부장제 사회의 부정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정주사에게 마땅치 않은 외모라는 작가의 시선을 통해 독자들은 계봉이 남성에게 예속되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채만식은 활달하며 개성적인 모습이 근대화된 여성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계봉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계봉은 자기 삶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체적 삶을 살고자 하는 방편으로 전문 기술을 갖고 싶어 한다. 이는 남성 중심 사회의 질곡

105) 위의 책, 68면.

106) 고소향, 「채만시의 탁류연구 - 시점의 양상과 페미니즘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4, 46면.

107) 채만식, 앞의 책, 61면.

에서 벗어나 새로운 여성성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교육과 사회적 경제적 뒷받침이 요구됨을 반영한다. 그러나 계봉의 이러한 인식은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정에서는 초봉의 희생을 전제로 하여 여성 모두의 지위 향상과 일치하지 않고, 남승재에게 공부를 더 시켜달라고 조르는 것과 같이 타인의 도움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모순되는 면이 보인다.

“언니, 내일 아침버텨는 밥 내가 하께, 응? 헤헤…… 척 이렇게 서어비슬 해야 하난 말이야…… 그 대신 이제 언니 결혼하구 나서 혹시 서울루 가게 되거들랑 나 공부 좀 시켜 주어야 해? 응?”

“…….”

“아이, 왜 대답을 안해? ……난 많이두 바라지 았구, 자그마치 의학 전문이나 약학 전문 하나만 마쳐 주문 그만이야.”

계봉이는 이 자리에서는 형을 놀리느라고 장난삼아 하는 말이지만, 그가 의학 전문이나 약학 전문을 다녀 한 개 버젓한 기술을 캐치하고 싶어하는 것은 노상 두고 하던 말이요 진정이었었다.¹⁰⁸⁾

『탁류』에서 계봉처럼 남성과의 대립된 상황에서 주체의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 여성을 특출나게 선택된 소수의 여성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자유주의 여성 해방론의 한계점이며 그 실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초봉의 희생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계봉을 통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작가의 선형적 통찰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탁류』를 살펴본 결과, 초봉과 계봉의 상호 대립적 관계 속에서 갈등 대립하면서 성숙하는 여성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채만식의 작품에서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의 주요 쟁점인 법적

108) 위의 책, 174면.

제도적 개선을 위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작가 의식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¹⁰⁹⁾

3. 박완서의 『나목』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

여성적 글쓰기란 개념은 곧 언어와 텍스트에 여성 육체와 여성적 차이가 각인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쇼왈터는 그것은 문학적 실천이 아니라 유토피아적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적 글쓰기는 여성성의 가치를 강조하고 남성과 여성의 글쓰기를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설명한다. 따라서 여성적 글쓰기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일은 매우 애매해진다. 페미니스트적인 읽기 가운데 변함없이 일관되게 전해져 온 가설은 여성들의 특별한 경험이 예술의 특이한 형식을 가정한다고 결정하는 믿음이다. 쇼왈터는 이러한 여성적 글쓰기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는지, 언어에서의 차이들의 생물학, 사회학 혹은 문화에 의해 이론화될 수는 없는지, 여성이 자신의 언어를 만들어 낼 수는 없는지 말하기, 읽기, 쓰기 모두가 성(姓)으로 특징화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묻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¹¹⁰⁾

쇼왈터가 지적한 것처럼 남성의 언어와 여성의 언어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성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진정한 여성만의 고유한 언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여성의 언어가 남성의 언어 속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적 글쓰기에 대한 탐구는 여성들만의 글쓰기 양식에 대한 차

109) 박명순, 앞의 논문, 84면.

110) Showalter. Elaine, 박경혜 외(역),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93, 34면.

이성을 밝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쇼왈터가 언급하고 있듯이 ‘언어에 대한 여성의 접근방식, 즉 단어를 선택할 수 있는 유용한 어휘의 범위, 언어 표현을 창출하는 이념적이고 문화적인 결정 요인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¹¹¹⁾이 될 것이다. 여성들의 의식과 경험을 표현하는 모든 언어는 곧 여성언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은 이러한 언어를 통해 가부장적인 지배질서에 대한 억압과 저항을 동시에 나타내는 전략적 글쓰기를 행한다.¹¹²⁾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아직까지 소외계층이며 가사노동을 전담해야 하고, 결혼과 더불어 사회활동의 장에서 은퇴하기를 강요당한다. 그러므로 여성의 글쓰기는 사회와의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표현인 경우가 많다. 여성이라는 존재론적 특수성에서 비롯된 갈등이 사회적 장에서 해소되거나 해결될 가능성이 차단된 상태에서 이러한 체험을 ‘자전적 글쓰기’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¹¹³⁾ 김연숙·이정희는 여성의 자전적 글쓰기의 의미부여를 여성의 자아 정체성 혼란의 극복으로 의미를 말하고 있다.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고통과 억압을 체험하는 여성은 몸으로 글쓰기를 하면서 현실을 인식하고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기를 시도한다는 것이다.¹¹⁴⁾

여성의 생활공간이 남성의 생활공간과 다른 만큼 여성의 경험은 남성의 경험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를 파악하는 양식도 달라진다. ‘여성의 경험’에 대한 강조는 여성중심 비평에서 주로 다루는데 남성다움, 남성적 논리, 남성적 글쓰기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및 여성적인 것에 대한 재평가 작업과 연결된다. 여성적 경험으로 생각할 수 있는 출산과 육아의 체험이 이분법적인 남성 논리와 달리 감정 이입적 여성 논리를 가능케 해주

111) 위의 책, 38면 참조.

112) 장윤정, 「현대 페미니즘 소설 연구 - 여성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9, 35면.

113) 김연숙·이정희, 「여성의 자기발견의 서사, ‘자전적 글쓰기」, 『여성과 사회』, 한국여성연구소, 1996, 86면.

114) 김혜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2011, 5면.

는 것이다.¹¹⁵⁾ 이는 ‘여성적 글쓰기’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여성 자신’을 쓰도록 강조한다.

1931년생인 박완서의 삶은 굴곡이 심했던 한국의 근대사와 일치하면서 식민지 말기, 해방공간, 전쟁의 현장을 체험한 세대로 역사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는 20대 중반에 결혼하여 다섯 아이를 키우고, 마흔이라는 나이에 작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1970년 『나목』으로 데뷔한 이후 소설, 콩트, 에세이, 동화 등 많은 장르의 작품을 발표해 왔고 현재도 등단 후 대중들의 호응과 폭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며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그는 등단하자마자 6·25 체험을 작품화했고 억눌려 왔던 소리들은 돌과 구를 만난 듯 끊임없이 반복해 왔다. 처녀작 『나목』, 『부처님 근처』 이후 1980년대에 다시 『엄마의 말뚝』 연작으로 그 기억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엔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등의 자전 소설에서 그때 그 여성들의 삶을 반복함으로써 기억하려는 글쓰기를 하고 있다.

박완서의 작품이 전쟁과 분단, 왜곡된 근대화 과정에서의 비인간화와 이데올로기적 억압으로 인한 여성의 비인간화 등의 주제에 걸쳐 폭넓게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문학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왔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여성들이 ‘참된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려는 고달픈 투쟁의 현장들이 그의 작품에는 치열하게 각인되어 있다. 또한 이 ‘참된 자기’를 찾아가는 여성들의 역사는 억압받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참된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이나 다르지 않다.

박완서 문학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논의들을 살펴보면 주제 유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볼

115) 한국여성연구회, 『여성학 강의』, 동녘, 1991, 213면 (참조).

수 있다. 첫째, 전쟁 체험의 내면적 형상화와 삶의 의미연구, 둘째, 도시와 중산층의 허위의식 비판 연구, 셋째는 페미니즘 시각의 여성 정체성에 관한 연구이다.¹¹⁶⁾ 특히 페미니즘 시각의 여성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박완서가 여성들의 삶을 해방적 관점에서 풀었으며 그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통해 남녀 모두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면서도 급격한 변혁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고 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였다.

박완서의 문학 세계는 자신의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주인공의 대부분이 여성이다. 박완서의 인생에서 주요한 개인적, 역사적 체험은 식민지시대의 근대 경험과 6·25 전쟁이 토대를 이루고 있다. 박완서에게 있어서 근대 체험과 전쟁은 작품 창작의 지배 동기가 된, 그의 삶을 지배한 근원적인 사건이라고 하겠다.¹¹⁷⁾ 따라서 그의 작품은 우리 근·현대사의 축소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역사적인 현실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의 작품 전개를 살펴보면 근대를 야가적인 것으로 경험하던 여성 주인공이 자기 경험 속에 각인된 의미를 스스로 발견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근대에 대한 비판정신의 획득과 함께 여성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그의 처녀작인 『나목』의 경우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여 쓰였다.

『나목』에서 나타나듯이 박완서 소설 곳곳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의 전쟁체험이 각인되어 있다. 박완서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6·25전쟁이라는 체험, 거기서 겪은 상처와 반생명적인 것에 대한 증언과 고발을 위해서 자전적 체험을 소설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즉, 박완서는 우물에서 물을 길듯이 체험이라는 우물¹¹⁸⁾에서 그의 문학을 퍼 담아 내고 있다.

116) 김혜진, 앞의 논문, 4면.

117) 김미영, 「박완서의 성장 소설과 여성 주체의 성장」, 『한중인문학연구』 25집, 한중인문학회, 2008, 181-182면.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다니고 있던 서울대 문리대 국문과를 중태하고 미군 부대 초상화부에 취직한 박완서는 전쟁의 체험으로 인해 일찌감치 청춘의 막을 내려야 했다. 대신 박완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오빠의 죽음과 딸이 아닌 아들을 데려간 하늘을 원망하는 어머니의 ‘원한’과 ‘처절한 생존’의 장이었다.

전쟁 체험이 반영된 박완서 소설에는 오빠의 죽음을 둘러싼 “그 며칠 동안의 낭자한 유희와 하늘에 맺힌 원한”과 함께 “사는 일의 악착같음”속에서 자기를 상실해가는 한 여성의 자기 회복에 대한 갈망이 투영되어 있다.¹¹⁹⁾

여성 성장소설¹²⁰⁾라 할 수 있는 『나목』은 작품 속 여성주인공은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삶의 본질과 철학뿐만 아니라 여성의 역할 및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여 인간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여성으로서의 성적 정체성을 정립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가. 모녀의 단절 속에 나타난 자기회복 의지

118) 신수정은 박완서 문학의 우물은 그의 체험이라고 했다.

신수정, 「증언과 기록에의 소명」, 『오늘의 문예비평』 63호, 세종출판사, 1998, 231면.

119) 김경수, 「자기 상실의 근대사와 여성들의 자기 찾기-박완서론」, 『페미니즘 문학비평』, 고려원, 1994, 70면.

120) 성장소설은 교양소설(Bildungsroman), 형성소설(Novel of Formation), 입사소설(Initiation novel), 보존소설(Preservation), 그리고 발전소설(Entwicklungsroman)이라고도 하며, 유년기에서 소년기를 거쳐 성인의 세계로 입문하는 한 인물이 겪는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성장,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각성의 과정을 주로 담고 있는 작품들을 지칭한다. (한용환, 『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1999, 376면.)

한국 현대 성장소설은 성숙의 지표로서 성의 문제를 관습으로부터의 일탈로 제시하여 성장 주체들이 올바른 성적 정체성에 도달해 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성 성장소설의 주인공은 궁극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삶의 한계를 인식하고 각성한다. 따라서 대표적인 여성성장 소설인 『나목』을 통해 페미니즘 소설과 연관 지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나목』에서 전쟁은 단순한 소재 차원의 배경이 아니라 작품전면에 등장하면서 여러 인물들의 성격과 행동을 지배한다. 전쟁은 두 오빠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고, 경아와 어머니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으며 진정한 예술을 꿈꾸었던 옥희도를 <잡종>들의 초상을 그려주는 환쟁이로 전락시켰다.

전쟁은 주인공의 삶을 뒤바꾸어 놓았을 뿐 아니라 한국 근대 사회에서의 여성의 존재 의미를 주인공에게 인식시켜 주었다. 6·25전쟁으로 인해 두 오빠를 잃은 박완서의 경험은 여성을 인식하는 한국 사회의 통념과 맞부딪치게 되었고 그러한 인식은 『나목』에서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다.

“네가 빨리 나아야 하느니라, 너의 어머니 생각을 해서라도.”

큰어머니는 매일 그날이 그날인 어머니보다도 나를 더 열심히 보살펴주었다.

“어서 기운을 좀 차려라. 너까지 어떻게 돼 봐라, 너의 어머니 신세가 뭐가 되나.”

이런 말만 곁들이면 쓴 한약도 꿀꺽꿀꺽 잘 마셨다.

“그래도 경아가 무사했기에 천만 다행이지, 어쩔 뻔 했누.”

그렇지 참 어쩔 뻔 했누, 가엾은 엄마를. 나는 새삼 내가 소중해서 열심히 나를 보살폈다.

(중략)

나는 어머니의 까실한 손이 똑 알맞게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정성껏 애무하며, 그녀에의 사랑과 나의 미래에의 꿈을 마음껏 누렸다.

“가엾은 나의 엄마. 엄마가 그런 걸 보셨다니. 어찌면 엄마가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을 줄이야. 그렇지만 엄마, 저를 위해서라도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엄마의 딸이 있잖아요.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어요. 오빠들 뒤편까지 효도를 하고 말고요. 가엾은 나의 엄마 빨리빨리 나오셔야 돼요.”

나는 어머니의 손을 내 손 사이에 받들고 기도 드리듯이 경건하게 어머니의 쾌유를 빌었다. 어머니가 별안간 눈을 크게 떴다. 처음엔 눈이 부신 듯이 가늘게 그러다가 점점 크게 열리며 내 눈과 마주쳤다.

“엄마, 나예요, 경아.”

(중략)

그러나 빛나던 어머니의 눈이 점점 귀찮다는 듯이 계슴츠레 감기며 나에게 잡혔던 손까지 슬그머니 빼내고 부스스 돌아눕더니 휴 하고 긴 한숨을 쉬고는

“어쩌면 하늘도 무심하지지. 아들들은 몽땅 잡아가지고 계집애만 남겨 놓셨노.”

나는 비실비실 일어섰다.¹²¹⁾

박완서에게 이 대목은 소설이 아니라 체험이다.¹²²⁾ 두 오빠를 잃은 경험은 6·25 전쟁이라는 한국인 보편의 체험을 ‘나’와 어머니의 특수한 체험으로 환치시키면서 ‘나’의 내면에 남겨진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자신을 파멸의 순간까지 밀어 넣는다.¹²³⁾ 또한 오빠들의 죽음 이후 제정신으로 돌아온 어머니의 입에서 “어쩌면 하늘도 무심하지지, 아들들은 몽땅 잡아가지고 계집애만 남겨 놓으셨노”라는 원성과도 같은 외침을 듣고 ‘나’의 존재가 모호해짐을 느낀다. 이는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를 확인시켜주는 말로 이제 막 개별자로서의 존재를 자각하기 시작한 여주인공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주문과 같은 것이다. ‘나’는 그때부터 사춘기적 자아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성적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¹²⁴⁾ 계집애로서 나의 존재는 하늘도 무심하여 남겨진 어머니에게 더 이상 쓸모 없고 하찮은 존재이자, 아들을 죽게 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121) 박완서, 『나목』, 세계사, 2011, 228-230면.

122) 박완서는 『나는 왜 작은 일에 분개하는가』(햇빛출판사, 1990)에서 어머니로부터 이런 말을 실제로 들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123) 조윤희, 「박완서의 페미니즘 소설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2002, 11면.

124) 김경수, 앞의 책, 198면.

아들이 죽은 후 삶 자체를 거부한 어머니는 먹는 것도 거부한다. 맛있는 김치를 담그고, 맛깔난 개성만두도 빚던 어머니는 설에 만두를 빚어달라고 한 딸의 기대를 저버린 채, 설날 아침에도 여전히 시척지근한 김칫국이 전부인 밥상 앞에서 의치를 뺀 호물때기 입을 이상한 모양으로 우물거린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나’ 또한 식욕과 삶에의 욕구를 잃게 한다.

울적함이 쉽사리 달래지지 않은 채 목구멍 근처에 묵직하게 걸려 있었다.
“그래도 설날인데 만두라도 좀 빚으시지. 흰 떡 하긴 번거롭지만…”
어머니는 대꾸없이 언제나와 똑같은 양의 식사를 우물우물 한껏 느리게 끝내고 서야,
“설은 무슨 놈의 설이누, 갇잡게시리.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구…”
독백처럼 입 속에서 웅얼거렸다.
나는 목구멍 근처에 걸려 있던 덩어리가 뜨겁게 콧 치미는 걸 의식하며 막 상을 들고 나가려고 뭉싯거리며 일어서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았다.
“엄마. 우린 아직은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 건 변화하게 마련 아녜요. 우리도 최소한 살아 있다는 증거로라도 무슨 변화가 좀 있어야 할 게 아녜요?”
“왜? 이대로도 우린 살아 있는데”
“변화는 생기를 줘요. 엄마, 난 생기에 굶주리고 있어요. 엄마가 밥을 만두로 바꿔만 줬더라도… 그건 엄마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 쉽고 작은 일이 딸에게 싱싱한 생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다는 걸 엄마 왜 몰라요?”¹²⁵⁾

그러나 경아는 어머니처럼 살기에는 너무 억울한, 아직은 사랑하고픈 마음이 세차게 꿈틀대는 젊은 나이다. 여기서 서술자인 ‘나’가 설에 만두를 먹고 싶어하는 것은 단순히 식욕의 문제가 아닐, 식욕보다 훨씬 절실한 자혜(慈惠)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며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행

125) 박완서, 앞의 책, 96-97면.

동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달리 곳곳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강한 생명에의 갈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빠들이 죽은 후 어머니는 늘 회색빛으로 가득한 모습이다.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어머니와 전쟁이 할퀴고 간 자리의 풍경은 물론 심지어 초상화부의 휘장도 회색빛이다. 오빠가 살아 있을 때 갖가지 음향으로 가득 찬 집안은 오빠가 죽고 난 후 집은 소리 자체가 죽어 있다. 오빠가 죽은 후 어머니는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은 채, 부우연 회색빛에 자신의 모든 것을 가두어 버린다. 나는 그런 어머니가 싫고 미웠고, 어머니의 회색빛 고집 앞에서 나의 내부에 있던 갖가지 욕망들도 꺾이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것은 그 회색빛 고집이었다.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아 있노라는 생활태도에서 추호도 물러서려 들지 않는 그 무섭도록 단단한 고집. 나의 내부에서 꿈틀대는, 사는 것을 재미나 하고픈, 다채로운 욕망들이 완강한 고집 앞에 지쳐 가고 있었다.¹²⁶⁾

그러나 ‘나’는 오빠의 죽음에 영영 자신의 젊음과 생기를 묶어두기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오빠의 죽음이 ‘나’의 삶에 큰 충격을 남겼고 어머니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오빠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는 자책감과 오빠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순간 받은 충격은 나의 전의식을 지배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 속에 감추어진 삶에 대한 기쁨과 끈질긴 집념을 알고 있기에 어머니와 달리 삶에 대한 강한 욕구를 수시로 느낀다.

가슴 밑 명치계가 요사이 늘 그렇듯이 체증 비슷한 거북함으로 보깨기 시작했다. 나는 엎드린 채 그 밑에 베개를 괴고 지그시 눌렀다. 난 알고 있었다. 그 속

126) 위의 책, 17-18면.

에서 사랑하고픈 마음이 얼마나 세차게 꿈틀대고 있는지를.¹²⁷⁾

그러나 나는 미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나는 내 속에 감추어진 삶의 기쁨에 의 끈질긴 집념을 알고 있다. 그것은 아직도 지치지 않고 깊이 도사려 있으면서 내가 죽지 못해 사는 시늉을 해야 하는 형벌 속에 있다는 것에 아랑곳없이 가끔 나와는 별개의 개체처럼 생동을 시도하는 것이었다.¹²⁸⁾

‘나’는 자신 내부에는 사랑하고픈 마음과 삶에 대한 끈질긴 집념이 세차게 꿈틀대고 있음을 알고 있다. 어머니와 달리 갖가지 소리와 다채로운 빛과 음식을 원한다. ‘소중한 나를 배고프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부엌으로 가서 어머니가 눈치 채지 않게 소리를 죽여 가며 밥상을 챙기는 그녀의 모습은 오빠의 죽음에 자신을 가둘 수 없다는 오기를 느끼게 한다. 그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강한 갈망을 보여주는 것이다.¹²⁹⁾

어머니의 무관심과 거부, 어머니와의 소외되고 단절된 관계로부터, 오빠의 망령이 깃든 고가와 전쟁 후의 답답하고 폐허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나’의 욕망은 우선 ‘누군가와 말을 하고 싶어하는 갈망’으로 나타난다.

아무리 뒹굴어도 나는 내가 이 드넓은 고가, 한쪽 날개를 잃은 흉가에서 완전히 혼자서 살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생각을 떨 수는 없었다.

나는 이 고가 밖에는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생각으로 나를 달래며 밖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궁리했다.¹³⁰⁾

127) 위의 책, 19면.

128) 위의 책, 139면.

129) 황도경, 「생존의 말, 생명의 몸 - 박완서론」, 『우리 시대의 여성 작가』, 문학과 지성사, 1999, 21면.

130) 박완서, 앞의 책, 168면.

아들이 죽은 후 어머니의 삶은 죽은 삶이며 소리 자체도 죽어 있었다. 그것은 결국 나의 삶에 소리가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소리 자체가 없는 어머니와 고가로부터 벗어나고자 바깥사람과의 대화를 원한다. 여기에서 누군가와 말을 하고 싶어하는 갈망은 ‘나’ 자신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 언어를 통한 자신의 존재와 경험 표현

언어충위는 여성들이 자신의 존재와 경험을 표현하는 모든 언어를 지칭한다.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적 언어의 독재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을 요구하며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남성의 언어 행위 안에서 작용하되 끊임없이 그것을 해체하는 언어라고 한다. 즉 여성이 직면하는 도전은 언어를 창출하며 또 가장 적절한 여성언어를 찾아 활용하므로 여성의 언어적 한계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언어충위에서 『나목』에 나타난 고백의 언어, 광기의 언어, 육체의 언어, 독백의 언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목』에서 자서전적 ‘고백의 언어’는 6·25를 다룬 작품들은 오빠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나에게 소설이란 무엇인가』에서 6·25를 다룬 일련의 작품들은 오빠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 보려는 몸부림 같은 작품들이라고 말한다.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내팽겨쳐진 그는 가족들마저 다 떠나고 1.4 후퇴 후의 서울에 남겨진 채 차마 눈뜨고 못 볼 신고를 하다가 죽었다. 그러나 남은 식구는 누구를 원망할 자격조차 없었다. 아무한테도 발설하지 못하고 우리 가족만의 비밀로 꼭꼭 숨겨둔 오빠의 죽음은 원귀가 된 것처럼 수시로 나를 괴롭혔다. 나의

초기 작품, 그 중에서도 6·25를 다룬 일련의 작품들은 오빠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 보려는 몸부림 같은 작품들이다.¹³¹⁾

여성들의 자서전적 글쓰기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향해 질문하면서 자신을 발견한다. 여기에는 자신의 경험을 이해받거나 아프게 경험한 시대의 상처를 보상 받고 싶어하는 심리적 요인도 깔려 있다. 따라서 자신의 한계상황으로부터의 탈출 의지를 보여주는 지나간 삶의 경험을 회상하는 고백적 언어가 될 수밖에 없다. 박완서는 고백의 언어를 통해 억압 의식과 불안의식에서 벗어나 세계와의 소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의 작품에서 오빠의 죽음이란 무의식 세계에 억압된 것이고 특정한 계기 속에서 반복적으로 귀환하는 신경증의 징후라 할 수 있다. 박완서는 진실한 고백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들을 풀어내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유로워지며 더불어 삶을 지탱시키는 힘이 된다. 이런 면에서 여성의 자전적 고백의 글쓰기는 가부장적 지배의 억압에 주변인으로서 저항하는 전략적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즉, 고백체의 언어는 자서전적 증언을 여성 자신의 언어이며 자신의 문체를 새로이 만들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목』은 ‘광기의 언어’를 통해 억압과 해방, 감금과 탈출 등의 이중적인 여성의 상황을 제시하며 가부장 사회에서 억압받는 현실과 도덕적 제도에 저항하는 작가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경아는 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의 욕망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앞날을 열망한다. 또한 어린 시절 가족들에게 사랑과 보호만 받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는 어머니에 대한 무관

131) 박완서, 「나에게 소설은 무엇인가」, 『모든 것에 따듯함이 숨어있다.(박완서 문학앨범)』, 웅진지식하우스, 2011, 123-124면 (참조).

심, 오빠를 죽게 한 것에 대한 죄의식이 공존하는 불안하고도 모순적인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며 ‘죽고 싶다’와 ‘살고 싶다’는 광기적 의식을 반복한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렇지만 은행나무는 너무도 곱게 물들었고 하늘은 어찌면 저렇게 푸르고 이 마당의 공기는 샘물처럼 청량하기만 한 것일까. 살고 싶다. 죽고 싶다. 살고 싶다. 죽고 싶다.

문득 전쟁이나 다시 휩쓸었으면 싶었다. 오빠들이 죽은 후에도 내 인생이 있다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내가 죽은 후에도 타인의 인생이 있다는 건 참을 수 없다. 다시 전쟁이 몰려 왔으면, 지금의 나는 전쟁에 의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¹³²⁾

그리고 보니 오늘 밤의 소란은 꼭 전쟁의 소음 같다. 전쟁의 노도가 어서 밀려왔으면, 그래서 오늘로부터 내일을 끊어놓고 불쌍한 사람을 잔뜩 만들고 무분별한 유린이 골고루 횡행하라. 광폭한 쾌감으로 나는 마녀처럼 웃으면서도 그 미친 전쟁이 당장 덜미를 잡아올 듯한 공포로 몸을 떨었다. 다시는 다시는 그 눈먼 악마를 안 만날 수만 있다면.

서로 용납될 수 없는 이 두가지 절실한 소망은 항상 내 속에 공존하고, 가끔 회오리바람이 되어 나를 흔들었다.¹³³⁾

전쟁에 대한 공포와 전쟁을 기다리는 모순, 경아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의식들은 소외된 것처럼 느껴지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불안이다. 분열된 자아 속에서 긍정과 부정이라는 두 가지 의식으로 경아는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132) 박완서, 앞의 책, 232면.

133) 위의 책, 94면.

헤겔의 견해에 따르면 자아의식(self-consciousness)은 항상 그것이 비록 타자의식(the other consciousness)이 아니라는 부정적인 증거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긍정-부정은 일종의 주인-노예 관계의 형식을 취한다고 헤겔은 주장한다.

한편에서는 그것의 본질적인 속성이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독립적인 의식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그것의 본질적인 속성이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 있거나 존재하는 의존적인 의식이 있다. ‘주인’의 필수적인 본질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며, 사물은 아무것도 아닌, 순전히 부정적인 힘이다. 그러므로 이 관계에서 주인의 행동(긍정)은 순수하고 본질적인 반면, 노예의 행동(부정)은 불순하고 비본질적이 된다.¹³⁴⁾ 하이데거는 자아를 비 본래적인 일상적인 양식과 본래적인 자아 사이에서 찢겨지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¹³⁵⁾

따라서 경아에게서 나타나는 모순적인 행동과 적개심은 전쟁이 끝나기 바라는 희망, 살고 싶다는 독립적인 주인의식과 전쟁이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과 죽고 싶다, 라는 노예적인 의존적인 두 가지 의식의 갈등이다. 부정적 노예의식은 독립적인 주인의식의 자아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다. 즉 경아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의 무관심, 오빠의 죽음에 대한 죄의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이러한 긍정적 주인의식과 부정적 노예의식의 반복은 끊임없는 모순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발견은 자아실현을 향해 자신을 열어 놓는 것이다.

다음은 『나목』에 나타난 ‘육체의 언어’를 통해 나타난 여성의 존재와 경험의 표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고통과 억압

134) Josephine Donovan, 김열규 외(역), 앞의 책, 218면.

135) 위의 책, 221면.

을 체험하는 여성은 몸으로 글쓰기를 하면서 현실을 인식하고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는 시도를 한다. 박완서 소설에서의 여성 주인공들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장애나 무력하게 느껴지는 현실을 경험할 때 몸을 통하여 증상을 자주 드러낸다. 육체의 언어는 신체를 통한 감각적 표현으로 이는 박완서 작품에서 몸을 통해 내면 의식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체적 특징이 될 수 있다.

이리가레이는 아이와 어머니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전오이디푸스 단계에 주목하여 이 단계는 주로 촉각에 근거하여 형성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촉각이 고려될 경우 여성 성욕은 결핍으로 규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리가레이는 여성적 특질을 강조하며 여성의 글쓰기를 여성의 생식기 구조로 설명함으로 여성의 성욕성을 시각이 아닌 촉각에 두고 있다. 즉, 남성의 성욕이 하나의 남근에 집중되어 있다면 여성의 성욕은 몸의 각 부분으로 분산되어 있다. 다음은 『나목』에서 경아가 몸을 통해 드러내는 여성적 감각의 언어들이다.

서로 용납될 수 없는 이 두가지 절절한 소망은 항상 내 속에 공존하고, 가끔 회오리바람이 되어 나를 흔들었다. 마구에 나는 동강나버리고 말 것이다. 나는 자신이 동강날 듯한 고통을 실제로 육신의 곳곳에서 느꼈다. 나는 아픔을 잊으려는 듯이 안방을 마루 서성대며 이 아픔의 까닭이 비롯된 시절로 자꾸 기억을 더듬어 올라갔다.

큰택 덕에 비교적 운택하던 피난살이, 아니 그전일 게다. 황량하던 피난길, 그때도 아니다. 그전, 어수선하던 크리스마스였던가. 피난을 갈까 말까 어머니 몰래 보따리를 챙겼다간 풀고, 다시 챙기고. 그때도 아니다. 그전, 수복 후의 나날들, 텅 빈 집과 뒤뜰의 은행나무들, 그 자지러지게 노오란 빛들, 비췌빛 하늘을 인 노오란 빛들, 아끼없이 쏟아지던 노오란 빛들, 지금도 눈이 부시다. 그때도 아니다. 그럼 그전, 그렇다. 그전, 그러나 나는 여기서 기억의 소급을 정지시켰다. 몇십 년이나

묵은 은행이 그 가을엔 왜 그렇게 처절하도록 노오랬던가. 난 그것을 보며 왜 그렇게 살고 싶고, 죽고 싶고를 번갈아가며 격렬하게 소망했던가. 지금도 그것이 궁금할 뿐 내 기억의 소급은 노오란 빛 속에 용해되어 다시는 헤어나질 못했다.¹³⁶⁾

전쟁의 상처와 아픔을 잊기 위해 아픔이 처음 시작된 시절로 기억을 더듬어 올라간 경아가 육체적으로 감지하는 촉각은 텅빈 집의 쓸쓸함과 뒤뜰의 은행나무들과 아낌없이 쏟아지던 노오란 빛이다. 여기서 경아의 미묘한 심리변화를 상징하는 ‘노오란 빛’은 박완서 소설에서 반복되고 있는 시각적 이미지이다.¹³⁷⁾ 이러한 시각, 촉각, 청각 등의 감각과 이미지에 의한 문체 전략이 곧 이리가레이가 말하는 몸의 각 부분으로 분산되어 있는 여성의 성욕을 통한 육체의 언어이다. 이처럼 전 오이디푸스 단계에서 어머니와 하나였던 친밀한 몸의 촉각을 통한 감각적 표현은 여성의 새로운 문체를 만든다. 따라서 여성들이 자기 삶의 허위성이나 소외를 육체의 언어로 소통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미학적 효과가 있는 여성적 감각의 언어들은 중요한 서사적 계기가 된다.¹³⁸⁾

일반적으로 여성의 글은 개인적이고 즉흥적이어서 기교적이고 미학적인 남성의 글과 비교했을 때 덜 문학적이라는 평가가 숨어 있다. 여기서 개인적이라는 말은 내성적인 혹은, 감정적인 것을 뜻하며 자질구레한 일상의 서술로 여성의 육체에 대한 경험과 욕망을 감추는 기능을 한다. 실제로 여성의 글에서 서술하는 자아는 자신의 내밀한 것에 대한 부재로서 침묵의 소리로 독자에게 전해진다. 남성에게 비해 언어의 자유가 없는 여성에게 침묵과 독백은 가장 소극적인 저항형태이자 필요불가결한 언어라고 볼 수 있

136) 박완서, 앞의 책, 94-95면.

137) 박완서의 『도시의 흉년』에서도 수연이 새로운 꿈을 씹으며 보았던 것도 ‘노오란 빛’이다.

138) 김혜진, 앞의 논문, 53면.

다.

박완서의 소설에서도 타인과의 단절이나 억압된 내면 심리를 내적 독백(독백의 언어)으로 표출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서술형식은 과거회상의 독백체와 현재의 심리를 드러내는 망설임¹³⁹⁾의 독백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나목』을 통해 과거 회상의 독백체로 내적 독백의 형태가 극대화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렇지만 은행나무는 너무도 곱게 물들었고 하늘은 어찌면 저렇게 푸르고 이 마당의 공기는 샘물처럼 청량하기만 한 것일까. 살고 싶다. 죽고 싶다. 살고 싶다. 죽고 싶다.

문득 전쟁이나 다시 휩쓸었으면 싶었다. 오빠들이 죽은 후에도 내 인생이 있다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내가 죽은 후에도 타인의 인생이 있다는 건 참을 수 없다. 다시 전쟁이 몰려 왔으면. 지금의 나는 전쟁에 의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나 전쟁이라면 곧 떠오르는 핏빛 호청과 젊은 육신의 처참한 파편들, 나는 그 부분은 망각하려고 고개를 미친 듯이 흔들고 낙엽 위를 뒹굴었다.¹⁴⁰⁾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경아의 내적 독백은 전쟁이 골고루 재난을 나눠주기 위해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과 전쟁의 공포를 느끼는 긍정과 부정의 의식이 드러난다. 이러한 분열의식은 소외된 것처럼 느끼는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불안으로 ‘독백의 언어’는 억압된 내면 심리의 여성적 의식을 표현하는데 적합하다. 1인칭 화자의 시점으로 서술되는 『나목』의 경우 전쟁 체험으로 인해 상처 입은 ‘나’의 내면심리가 자전적 내적 독백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대화가 아닌 유동적이고 모호한 독백은 남성의 언

139) 『목마른 계절』에서 진이의 현재 심리를 나타내는 망설임의 독백체를 볼 수 있다.

140) 박완서, 앞의 책, 232면.

어와 대비된다. 엘렌 식수는 여성의 상상력은 음악처럼, 회화처럼 글쓰기처럼 무궁무진하다고 말한다.¹⁴¹⁾

남성의 언어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확신에 차 있다고 평가되는 반면, 여성의 진정한 언어는 유기적이고 에로틱하고 총체적이라고 평가된다. 그것의 원천은 어머니 중심의 전오이디푸스 단계의 모친이며 여성은 결코 모친과 동떨어져 있지 않으며 모친과의 유대관계는 일차적이기 때문이다.¹⁴²⁾



141) Helene Cixous, 박혜영(역), 『메두사의 웃음』, 동문선, 2004, 10면.

142) Josephine Donovan, 김열규 외(역), 앞의 책, 215면.

IV. 페미니즘 소설의 문학 교육

문학 교육은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남녀의 모습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성역할 고정 관념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교과서 내 문학 작품 속에서 남녀가 불평등 관계로 설정되면 이 모습을 통해 청소년 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적 가치는 우월하고 여성적 가치는 열등하다는 의식이나 무의식을 형성하고 여성을 왜곡하거나 모성을 신비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국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을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갈 필요가 있다.¹⁴³⁾

국어과 교육과정에 의하면 국어과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여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문화를 누리면서 국어의 창의적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¹⁴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어교과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국어 교과에서 문학

143) 김재춘, 앞의 책, 79면.

144) 교육과학기술부, 『국어과 교육과정』 제 2011-361호, 교육과학기술부, 2011, 3면.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문학 분야가 국어 교과서 내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은 감동이라는 형식에 의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의식과 무의식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문학작품 속에는 다양한 인물과 사건을 위주로 하여 많은 갈등이 나타난다. 그리고 작품 속에 나타난 갈등과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정서와 삶을 이해하고 문학 작품을 당시의 사람들의 역사적 삶과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문학작품을 감상하며 독자는 인생에 대한 작가의 관점이 어떻게 형상화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경우 그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한다.

페미니즘은 서양의 여성 현실을 중심으로 하여 정립된 이론이지만 한국에 유입된 이래로 한국의 여성 현실과 상황에 맞추어 한국적 페미니즘으로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때문에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거나 이에 저항하는 과정을 그려내는 방식으로 현실의 문제와 깊이 관계 맺는 리얼리즘 문학의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1980년대 사회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한국 여성 운동은 더욱 활발해졌고 페미니즘 소설의 기반이 되는 여성과 여성 현실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페미니즘 소설은 작가의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며, 작가의 의식이 형상화된 여성상을 통해 여성 문제에 대한 위기감을 독자에게로 확대시킨다.

여성 교육의 입장에서 접근해보면 페미니즘 소설은 여성의 주체적인 자아 형성을 위한 훌륭한 교육 제재가 될 수 있다. 특히 소설이라는 설득력 있는 매개체를 통해 여성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페미니즘 소설은 현 교육에 필요한 페미니즘의 시각을 제공하면서도 기존 질서에 익숙해진 권위 집

단의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 제재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페미니즘 문학을 소설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의의는 무엇일까?

먼저 페미니즘 소설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우선 페미니즘 비평 이론의 초기단계인 ‘여성이미지 비평’의 경우 그동안 보편적으로 다루어졌던 남성 중심적인 가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즉, 이른바 ‘정전’이라고 불리던 남성작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 인물에 대한 왜곡된 묘사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남성 중심적 가치의 허위성에 대해 폭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페미니즘 시각으로 문학 작품을 교육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주어진 텍스트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즉, 페미니즘 소설 교육을 통해 왜곡된 여성이미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르다보면 이면에 감추어진 또 다른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또한 문학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사고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문학 교육이 작품의 이해와 감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차원으로까지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여성적 글쓰기’는 여성적 경험의 특성과 여성주체의 형성과정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여성적 글쓰기’는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특성을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작가의 글 속에 드러난 긍정적인 여성상을 연구하거나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성성의 규명을 노력 하였다.

따라서 페미니즘 소설 교육은 여성의식을 다룬 작가의 작품을 통해 진정한 여성성이 무엇이며 여성의 정체성 형성과정의 특수성은 무엇인지에 대

해 고찰해보는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활동을 통해 여학생들은 진정한 여성상이 무엇이며,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나아가 좀 더 주체적이고 긍정적인 여성으로서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학생들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피상적이고 허구적인 여성상에 대해 비판적인 안목을 갖게 되며 여성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진정한 이해의 노력이 필요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적 경험과 여성들의 정체성 형성과정은 어떠한 특수성을 갖는지에 대해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남성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교육의 목표 중 하나가 “가치관 형성”, “바람직한 인간형성”, “개인의 주체성 확립”등 이라고 할 때, 이러한 페미니즘 소설교육은 학습자로서 하여금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이라는 교육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본다.

페미니즘은 남성에 대한 배제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이항대립구조를 해체함으로써 양성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데에 목표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이항대립구조의 해체를 통해 양성의 공존을 모색하는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지적 흐름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면 이는 학습자들이 여성문제에 주목하고 성에 관한 가치관의 문제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줄 수 있다. 또한 이항대립구조의 또 다른 ‘타자’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확장하는 기회를 갖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페미니즘 소설교육의 교육적 의의를 고려하여 페미니즘 소설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페미니즘과 문학교육이 각각 목표하

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페미니즘은 여성 억압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그 억압의 원인과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문화체계 속에 숨겨진 선입견을 드러내며, 이차적으로는 그러한 차별적 현상의 객관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제한적인 기존의 문화와 문학을 해체하여 새로운 지식과 관심을 창출하고자 한다.¹⁴⁵⁾

즉, 페미니즘의 목표는 첫째, 문화체계 속에 내재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것과 둘째, 성(性)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학교육의 목표는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문학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통하여 문학능력을 길러, 자아를 실현하고 문학 문화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바람직한 인간을 기른다.

가. 문학 활동의 기본 원리와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이해한다.

나. 작품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기른다.

다.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를 이해하며, 문학의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라. 문학의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차명하여 문학 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¹⁴⁶⁾

이처럼 문학교육은 텍스트를 대상으로 수용, 창작의 교육이며 동시에 가치관의 변화까지 이루어가는 문화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은 본질적으

145) 변신원, 「페미니즘 비평」, 『현대문학의 문학기론과 비평』, 시문학사, 1991, 6면.

146)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②국어』, 대한교과서, 2001, 303면.

로 가치 지향적인 활동으로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자에게 가치 있는 어떤 특성을 길러주는 교육적 가치의 실현과정이다. 이러한 교육적 가치는 학습자의 삶의 지향을 안내하는 가치관의 기반이 된다. 즉 자신의 교육적 경험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지향을 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실천하게 된다. 문학 또한 본질적으로 삶의 문제를 규명하려는 노력이며, 교육도 또한 그러하다면 이 둘이 맺는 상호 작용 속에서 학습자가 가져야 할 삶의 지향성을 가치관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야기하기 어려울”¹⁴⁷⁾ 것이다. 때문에 문학교육은 일차적으로는 “문학현상”¹⁴⁸⁾에의 주체적 참여, 즉 학습자가 문학적 문화에 입문하여 문화문법에 따라 문학을 향유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며, 이차적으로는 문학 테스트를 통해 가치관의 변화까지를 이루어가는 문화교육인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 본 페미니즘의 목표를 문학교육에 적용한다는 것은 문학작품의 페미니즘적 읽기를 통해, 학습자가 문화체계에 내재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에 대해 분석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일이 될 것이다.

남녀차별의 가치관을 교육현장에서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은 양성평등이라는 이상사회 구현을 더욱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행위이고, 더 나아가 인간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표면적으로 양성평등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기회의 평등일 뿐 결과의 평등 면에서는 아직도 양성불평등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양

147) 선주원, 『소설교육의 원리와 방법』, 새미, 2003, 108면.

148) 문학현상이란 문학이 우리의 삶과 문화(또는 교육)속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작용하는 일체의 과정과 모습을 일컫는 말이다. 즉, 문학의 존재와 소통은 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문학텍스트가 생성되고, 문학 텍스트 자체의 구조가 독자들에게 수용되고, 텍스트와 삶의 현실 간에 반응을 드러내는 등 일련의 작용과정을 뜻한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사, 1999, 311면.

성평등 의식을 가져야 함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양성평등 교육이 꼭 필요하다. 양성평등 교육은 다음과 같은 충분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첫째, 성별에 구애 받지 않고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이 지닌 궁극적인 목표는 각 개인이 자아를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는 남녀 모두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충분히 개발, 활용함으로써 여성 또는 남성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아를 실현해 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교육의 궁극적 목표에 비추어보았을 때 양성평등에 입각한 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자아실현을 통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제공한다.

둘째, 자립적인 마음과 태도,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사회는 급속한 발전과 변화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사회에서 자신의 주관을 뚜렷이 정립하고 타인에게 정신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올바른 생각으로 비판하고 자주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성평등 교육은 학생들이 경제적, 생활적으로 자립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셋째, 타인의 특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사회는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학생들은 가정을 떠나 학교에서 공동체 사회를 배우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학생들은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타인의 개성도 인정하고 그를 격려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양성평등교육은 자신과 다른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남녀가 서로 존중하여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사회적·국가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인력을 개발할 수 있다. 양성평

등교육은 그동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에게 적합한’ 기준의 교육을 받아 왔으며 여성이 할 수 있는 일과 활동을 제한 받아야 했던 것에서 벗어나 여성 개개인이 각자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개발할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여성’이라는 성차별적 인식에 사로잡혀 활용하지 못했던 국가적 자원을 개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정보·지식 사회를 맞이하여 창의적인 여성 인력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고등학교 검인정 국어(상)·(하)교과서의 현대소설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시각에서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양성 평등 교육을 위한 페미니즘 소설의 문학교육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II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기초로 한국문학에 있어 페미니즘 문학의 흐름을 살펴보고, 페미니즘 비평 방법인 여성이미지 비평, 여성작가 비평, 여성적 글쓰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성이미지 비평은 여성 해방 의식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페미니즘 비평 이론으로 여성 독자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즉 여성 독자들의 성적 정체성을 강조하여 저항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남성 작가들에 의해 왜곡되게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를 폭로하고 교정하는 작업이다. 여성 작가비평은 여성억압 문제를 간과하고 있던 기존 진리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남성 중심적 사고에 여성작가를 중심에 놓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여성 작가 비평은 문학사에서 제외되었던 여성 작가를 발굴하여 문학사적 위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가부장제 규범에 저항하는 의지와 분노의 표현으로 고안했던 여성 문학 양식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여성적 글쓰기는 유동적이고 시적이며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III장에서는 교과서 분석을 통해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대안 모색의 마련하고자 하였다. 교과서는 학교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수-학습 자료이다. 따라서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 가치관과 인성을 형성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 특히나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지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하에서 성차별이 당연히 여겨졌던 그동안의 인식들을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과서는 양성평등적인 입장에서 구성되고 교육되어야 한다.

2011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검인정 국어교과서 16종에 실린 작품들의 저자 성비를 비교해 보면으로써 남성 저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작품의 저자뿐만 아니라 작품 내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이 대부분 수동적이고 궁핍한 사회 현실의 희생자로 그려져 있어 학생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여성은 무능하고 이차적인 존재라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학생들에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여성상이 여성의 본질이라는 성 불평등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으며 현재를 살아가는 자신의 경험과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간의 불일치로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페미니즘 관점에서 교과서 내용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첫째, 교과서의 내용이나 삽화에 여성 인물을 남성 인물과 비슷한 비율로 비중 있게 등장시킨다. 둘째, 사회에 편재한 성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비판하는 내용을 반영한다. 셋째,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공정하게 소개한다. 넷째, 현재 사회가 지니고 있는 긍정, 부정적인 면들을 과감하게 반영한다. 다섯째, 여성에 관련한 내용을 본문 속에 주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제시한다. 여섯째, 교과서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을 자제하고 성 평등한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제시한 여섯 가지의 개선 방향은 올바른 여성상을 확립하고 양성평등의 교과서를 구현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제반여건이 갖추어지면 양성평등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에서 보다 현실적인 논의들이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II장에서 다루었던 페미니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페미니즘 비평 방법 중 여성적 글쓰기 비평을 토대로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중 남성작가

의 여성적 글쓰기와 여성작가의 여성적 글쓰기로 나누어 작품을 연구해 보았다. 남성작가 작품으로는 1930년 남성작가로 여성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채만식의 『탁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여성을 정체성을 찾고자 했던 작품을 많이 썼던 박완서의 『나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채만식의 『탁류』에서는 근대 식민지 시대에 희생을 강요당해야 했던 여성의 인물인 ‘초봉’이 파멸되는 과정을 전개함으로써 가부장제 사회 모순을 고발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여성인 삶을 간접적으로 비판한다. 또한 대안적 인물로 ‘초봉’과 대립되는 인물로 남성에게서 독립하여 주체적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계봉’을 통해 상호 대립적 관계 속에서 갈등, 대립하면서 성숙하는 여성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나목』에서는 작가의 경험을 토대로 쓰인 자전적 글쓰기의 작품을 통해 여성이 현실을 인식하고 가부장제 사회에서 혼란을 겪었던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식민지 시대의 근대 경험과 6·25 전쟁을 겪은 작가의 체험이 고스란히 담긴 이 작품에서 작가는 전쟁으로 인해 오빠를 잃은 어머니와 ‘나’(경아)의 단절된 상황을 그리면서 어머니와 ‘나’의 삶에 대한 대립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개를 고백의 언어, 광기의 언어, 육체의 언어, 독백의 언어와 같은 언어층위를 통해 여성 주인공이 현실을 인식하고 삶의 본질과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여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IV장에서는 페미니즘 소설의 문학교육 목표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어 교육은 학생들이 성(性)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여성을 온전한 인간으로써 잠재 능력을 계발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나 문학 분야는 작품속의 다양한

인물과 사건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아를 성찰하고 인간의 정서와 삶을 이해하여 다양한 공동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한다. 앞에서 살펴본 『탁류』와 『나목』과 같은 페미니즘 소설은 여성의 주체적인 자아 형성을 위한 훌륭한 교육 제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자료 >

- 김대행, 『국어(상)·(하)』, 천재교육, 2010.
- 김병권, 『국어(상)·(하)』, 더 텍스트, 2010.
- 김종철, 『국어(상)·(하)』, 천재교육, 2010.
- 문영진, 『국어(상)·(하)』, 창비, 2010.
- 민현식, 『국어(상)·(하)』, 좋은책신사고, 2010.
- 박갑수, 『국어(상)·(하)』, 지학사, 2010.
- 박영목, 『국어(상)·(하)』, 천재교육, 2010.
- 박호영, 『국어(상)·(하)』, 유웨이중앙교육, 2010.
- 방민호, 『국어(상)·(하)』, 지학사, 2010.
- 오세영, 『국어(상)·(하)』, 해냄에듀, 2010.
- 우한용, 『국어(상)·(하)』, 두산동아, 2010.
- 윤여탁, 『국어(상)·(하)』, 미래엔컬처그룹, 2010.
- 윤희원, 『국어(상)·(하)』, 금성출판사, 2010.
- 이삼형, 『국어(상)·(하)』, 디딤돌, 2010.
- 조남현, 『국어(상)·(하)』, 교학사, 2010.
- 한철우, 『국어(상)·(하)』, 비상교육, 2010.
-
- 박완서, 『나목』, 세계사, 2011.
- 채만식, 『탁류』, 문학과지성사, 2005.

< 단행본 >

- 고은미, 『여성문학의 이해』, 태학사, 2007.
-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집필 기준』 2007-79호, 교육과학기술부, 2009.
- 교육과학기술부, 『국어과 교육과정』 2011-361호, 교육과학기술부, 2011.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2011-361호, 2011.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국어②』, 대한교과서, 2001.
- 구인환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94.
- 김경수, 『페미니즘과 문학비평』, 고려원, 1994.
- 김미현, 『여성문학을 넘어서』, 민음사, 2002.
-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 김재인, 『여성 진로의 다양화와 교육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1993.
- 김중신, 『한국 문학교육론의 방법과 실천』, 한국문화사, 2003.
- 김해옥, 『페미니즘 이론과 한국 현대 여성 소설』, 박이정, 2005.
- 또 하나의 문화 편집부, 『여성해방의 문학』, 평민사, 1995.
- 박용옥, 『한국여성 항일운동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 변신원, 『현대문학의 문학기론과 비평』, 시문학사, 1991.
- 서정자, 『한국여성소설과 비평』, 푸른사상, 2001.
- 서지문, 『여성해방의 문학』, 평민사, 1995.
- 선주원, 『소설교육의 원리와 방법』, 새미, 2003.
- 송명희, 『타자의 서사학』, 푸른사상, 2004.
- 송지현, 『페미니즘 비평과 한국소설』, 국학자료원, 1996.
- 이경호외,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 이주형, 『채만식 연구』, 태학사, 2010.
- 이화어문학회 저, 『우리 문학의 여성성, 남성성(현대문학편)』, 월인, 2000.
- 정순진, 『한국문학과 여성주의비평』, 국학자료원, 1992.
- 정요섭, 『한국여성운동사』, 일조각, 1971.
- 정경호, 『탈근대 인식과 생태학적 상상력-쉬움의 미학과 퍼트럼의 정치학에 관한 에세이』, 한신문화사, 1997.
- 최동현·임명진, 『페미니즘 문학론』, 한국문화사, 1996.
-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 팸 모리스, 강희원(역),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7, 22면.
- 프랑스학연구회, 『프랑스학 연구』, 어문학사, 2003.
- 한국문학연구회, 『페미니즘과 소설 비평』, 한길사, 1997.
- 한국여성문학학회, 『한국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소명출판, 2008.
- 한국여성연구회, 『여성학 강의』, 동녘, 1991.
- 한상길 외, 『여성교육론』, 양서원, 2007.
- 한용환, 『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1999.
- 황도경, 『우리 시대의 여성 작가』, 문학과 지성사, 1999.
- Helene Cixous, 박혜영(역), 『메두사의 웃음』, 동문선, 2004.
- Josephine Donovan, 김열규 외(역), 『페미니스트 문체비평』, 문예출판사, 1988.
- Miriam Glucksmann, 정수복(역), 『구조주의와 현대마르크시즘』, 한울, 2002.
- Ruthven, K.K, 김경수(역), 『페미니스트 문학비평』, 창작과 비평사, 1989.
- Showalter. Elaine(외), 박경혜 외 (역),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93.

< 학위논문 >

- 고소향, 「채만식의 탁류 연구 - 시점의양상과 페미니즘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2004.
- 김미진,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 논문, 2009.
- 김미현, 「한국 근대 여성소설의 페미니스트 시학 : 여성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6.
- 김애희,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의 성차별적 내용분석」, 부산대 석사학위 논문, 2004.
- 김윤경, 「1980~1990년 여성작가들의 여성적 글쓰기 연구」, 세명대 석사학위 논문, 2007.
- 김의선, 「탁류 인물 연구 : 페미니즘 관점으로」,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자혜, 「고등학교 문학교육에서의 페미니즘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1.
- 김혜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2011.
- 김홍기, 「채만식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1990.
- 노미연, 「1990년대 여성소설의 자전적 글쓰기 연구 : 박완서, 신경숙 소설을 중심으로」, 단국대 석사학위 논문, 2011.
- 문남순, 「박완서 소설의 자전적 글쓰기와 다시쓰기」,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2004.
- 문미중, 「박완서의 나목에 나타난 체험과 상징에 관한 연구」, 수원대 석사학위논문, 2008.
- 문진란, 「채만식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1992.
- 박명순, 「채만식 소설의 페미니즘 연구」, 공주대 박사학위 논문, 2006.
- 방영이, 「한국근대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1992.
- 송민경, 「채만식의 타류에 나타난 여성인물 연구」,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송영실,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나타난 여성이미지 연구」, 부경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신갑숙, 「박완서의 나목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2005.
- 안지영,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수록 고전소설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8.
- 엄혜자, 「박완서 소설 연구: 주제의식의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 경원대 석사학위논문, 2011.
- 윤용원, 「고등학교 국어교과 양성평등 교수-학습방안 연구」, 한경대 석사학위논문, 2008.
- 윤희정,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성차별 양상」,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이덕주,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성차별적 요소 분석: 소설·희곡의 여성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0.
- 이미선, 「중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성차별 연구: 현대소설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소운, 「페미니즘 비평과 문학 교육」,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정례,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제6차 교육과정 중,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태숙, 「여성성의 근면적 경험 양상 - 1920,30년대 문학을 중심으로 -」,

-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0.
- 이희선, 「교과서 수록 현대소설 연구 : 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인천대 석사학위논문, 2000.
- 임해림, 「여성 작가의 자전적 소설 연구 : 박완서, 신경숙의 과거 체험의 소설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장순심,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국어교과서」,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장윤정, 「현대 페미니즘 소설 연구 : 여성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9.
- 장종기,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소설의 변화양상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10.
- 전유선,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의 성차별 극복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아주대 석사학위논문, 2009.
- 정선영, 「채만식 소설의 여성주의」,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1999.
- 정아정, 「현행 중학교 교과서 수록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 연구」,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2003.
- 정재현, 「페미니즘 소설교육 방법 연구-오정희의 ‘중국인의 거리’를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8.
- 정현주,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수록 소설의 여성인물연구 : 양성평등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조동길, 「1930년대 후반기 한국 장편소설 연구-농민소설과 세태소설의 배경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0.
- 조용선,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소설의 성차별 연구 :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조윤희, 「박완서의 페미니즘 소설 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2002.

한정자, 「박완서 소설 연구 : 글쓰기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 교원대석
사학위논문, 2001.

< 일반논문 및 평론 >

강금숙, 「박완서 소설의 공간에 나타난 여성의식」, 『이화어문논집』, 이
화어문학회, 1989.

김미영, 「박완서의 성장 소설과 여성주체의 성장」, 『한중인문학연구』,
한중인문학회, 2008.

김성례, 「여성의 자기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견을 위하여」, 『또 하나의
문화』 9호, 또 하나의 문화, 1992.

김연숙·이정희, 「여성의 자기발견의 서사, ‘자전적 글쓰기’」, 『여성과 사
회』, 한국여성연구소, 1996.

김재인·정해숙·양애경,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남녀역할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93.

김재춘,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양성 평등 교육 실현 방안 연구 - 5개
교과 양성 평등 수업 지도 방안 개발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과정평가
원, 1999.

또 하나의 문화 편집부, 「새로 쓰는 사랑이야기」, 「새로 쓰는 성 이야
기」, 『또 하나의 문화』 7·8집, 또 하나의 문화, 1987.

박명순, 「채만식 소설에 나타난 여성모티브 고찰 - 탁류와 인형의 집을
나와서를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3.

성낙희, 「풍자문학론-채만식론을 겸하여」, 『청파문학』 9호, 숙명여대,
1971.

- 신수정, 「증언과 기록에의 소명」, 『오늘의 문예비평』 63호, 세종출판사, 1998.
- 안주호, 「양성평등 의식과 국어과 교육」,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2003.
- 안주호, 『여성통계연보 1999-200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2.
- 오재립, 『양성평등관점에 기초한 제 7차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및 교과서 심의기준 마련에 관한 정책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2.
- 윤동진, 「프랑스 페미니즘과 여성적 글쓰기」, 『여성논총』, 경기대 여학생문화원여성학 연구실, 1998.
- 이진분, 「여성 교육의 현실과 방향 모색」, 『성평등 문화를 여는 교육』, 단 하나의 문화, 1995.
- 이형진, 「채만식의 탁류에 나타난 여성 재현 양상 연구」, 『어문연구』, 한국어문교육학회, 2011.
- 정금자,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제6차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98.